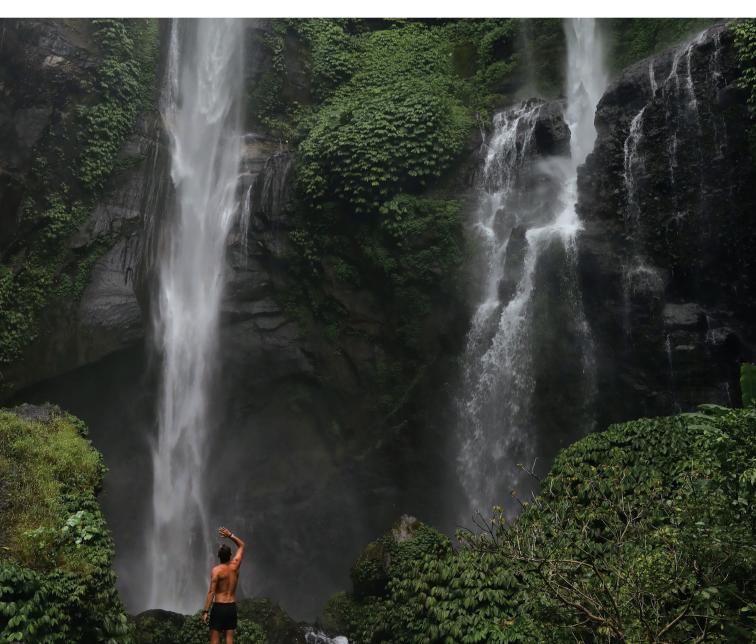
haninnewsinni@gmail.com







米 KB Bukopin

*STM(SME Total business Manager): KB국민은행 금융컨설팅 전문가 (한국인)

5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코핀은행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되어 KB 부코핀은행으로 출발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본국의 기업금융 전문가 15명을 KB 부코핀은행 현지에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内 한국계 기업 및 교민분들을 위해 현지 영업점과 협업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기예금 특별 금리 제공
- 기업대출 상담
- 환율 우대 제공
- 한국 직원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금융컨설팅)

종류	기간	금액 SPECIAL TO
정기예금	6개월	1억 Rp 이상
	1년	141/h 10
기업대출	1년 이상	기업평가를 통한 금액 및 금리 결정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지역	담당자	연락처
본점(코리아데스크)	본부장 정철민	0821 1463 0602
본점 영업부	Ms.Siska Andini	0819 0505 4922
서부자바(자카르타)	팀장 박현석	+82 10 6778 1796
중부자바(스마랑)	팀장 한찬호	+82 10 9474 9985
동부자바(수라바야)	팀장 김기호	+82 10 2017 8610

KB 부코핀은행은 2022.6월 Global 신용평가회사 Fitch 및 인도네시아 신용평가 회사 Pefindo로 부터 인도네시아 기준 최우량 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유지비 걱정 NO

- · 내연기관차 대비 최대 4.9배 비용절감 효과 (복합연비 기준)
- 16,8 kWh/100 km (1 kWh/5,9 km)* 충전시 Rp 28.543**
- 10 liter/100 km (1 liter/10 km)* 주유시 Rp 139.900**

배터리 걱정 NO

· 배터리 무상 보증 8년 / 16만 km

구분	IONIQ 5	내연기관차
부가가치세 (PPN)	1%	11%
사치세 (PPnBM)	0%	15%/20%
차량취득세 (BBNKB***)	0%	12,5%

- *Prime Long Range 19인치 휠 모델 및 내연기관차 평균연비 10 km/ℓ 기준
- **가정용 AC 충전기 (Rp 1.699/kWh) 및 Pertamax RON 92 기준 (Rp.13.990)
- ***23년 5월 기준이며, 지역별로 시설 사양 또는 서비스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충전 걱정 NO

- · 전국 현대차 충전소 181 개소 (Plaza Indonesia 신규 초고속 충전소 포함)
- · 공공 전기차 충전소 (SPKLU) 616 개소***
- · 찾아가는 충전서비스*** (긴급 무상)

주행거리 걱정 NO

·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 481 km*



한국인 금융 상담 : +62 813-1696-2061 왓츠앱문의 (Sunindo KB Finance),

+62 21-1500881 또는 카카오톡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채널 검색 (신한은행)

판매 및 서비스 문의: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 전담팀 대응)





Located in the heart of south Jakarta with unrivaled views of this prestigious district, the residences are perfect for both business and leisure with its elegant one to three bedroom apartments and four bedroom penthouses, delivering an unprecedented lifestyle choice in the capital for short-term and extended stays.

The property is connected to the InterContinental Hotel Jakarta Pondok Indah, premium shopping malls, office towers and is strategically located within minutes to excellent healthcare facilities, international schools and a world-class golf course.

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 and to schedule a tour T. 021 3950 7355 E. sales.icjakarta@ihg.com



2020년 9월에 개장한 InterContinental Residences Jakarta Pondok Indah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럭셔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의 레지던스입니다.(IHG®). 각종 수상 경력에 빛나는 Hirsch Bedner Associates Singapore가 설계한 InterContinental Residences Jakarta Pondok Indah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설, 국제 학교 및 전설적인 Pondok Indah 골프 코스와 한개에서 세개의 침실이 있는 레지던스와 침실 네개의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Jakarta Pondok Indah의 프리미엄 편의 시설 및 서비스의 풀 패키지로는 최첨단 24시간 피트니스 센터와 야외 수영장, 고급 부티크를 자랑하는 Pondok Indah Malls 1, 2, 3 이용이 가능하며 레지던스는 200개의 다이닝 옵션. 엘리트회의 공간과 2개의 세계적 수준의 레스토랑(수상 경력에 빛나는 Sugar & Spice와 Shio, 노련한 일식 셰프 호다카 히데마로의 고급 일식 레스토랑)을 갖춘 InterContinental Jakarta Pondok Indah Hotel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소 체류 기간은 1주일입니다







InterContinental Residences 예약은:



- T. +6221 3950 7355
- E. salescoordinator.ICJakarta@IHG.com
 InterContinental Residences Jakarta Pondok Indah
- JI. Metro Pondok Indah Kav. IV TA, Jakarta 12310, Indonesia

월간 한인뉴스 6 2023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표지사진: 김태호(한인미술협회) 2021년 5월 스꿈뿔 폭포, 불레렝, 발리

(Sekumpul Waterfall, Buleleng, Bali)

8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한-인니 수교50주년]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

11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이사회

12

김재훈의 '세무 TALK' 배당 소극에 대한 비과세 규정

16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0

문법왕 〈민선희〉

24

[여기가 맛집!]

HOSHINO COFFEE 〈황지영〉



contents

2023. 6. 통권 324호

28

[떠나야 보이는 것들] 여행하듯 머물던 자카르타 생활의 끝자락에서 〈손예리〉

31

[반려동물 랜선집사] 양이와 몽이

32

2023 청소년통일골든벨 〈문서현〉

34

[루이사의 힐링공간2] 인생을 되돌아보게하는 여행-택시 안에서

36

[서상영의 한방칼럼1] 허리통증

40

[행복에세이] 바이칼의 어죽 〈김준규〉 42

[두 개의 시선] 어린 부디만이 기억하는 아버지 〈헬른 하르소노〉

44

[홈 필라테스 3] 건강한 허리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Christine Park〉

47

청기협 경제사절단 한인회 방문

48

JIKS 소식

50

안부 〈김아람〉

54

마지막 스승의 날 〈주연서〉 56

서점을 두리번 거리다 〈편집국〉

58

내 아이의 글쓰기2 〈조은아〉

62

신화를 찾아가는 자연과 문학

63

이영미작가 제5회 〈목일신아동문학상〉 동화부문 당선

6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22)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의 수혜자 보고 의무(2) 〈이승민〉

68

생활정보



[한-인니수교 50주년]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



논설위원 신성철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라는 영어 속담이 있다. 인생을 살다보면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 곤란한 일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 일수도 있다. 국가 간 외교관계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비슷하다고 말한다.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자,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가혹한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한지 이틀 후인 1945년 8월17일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이 독립선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300여년 간 식민통치를 했던 네덜란드에 맞서 독립전쟁을 시작해, 4년 간 수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주권을 넘겨 받았다. 네덜란드가 1949년 12월27일을 인도네시아 독립일로 인정한 직후인 12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국가승인을 추진하며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양국은 1973년 수교한 이후 올해가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그동안 양국은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50년 우정을 넘어 진정한 미래동반자의 관계로 성숙하고 있다.

먼저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인도네시아가 손을 내밀었다. 2013년 한국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가 발행한 '6·25전쟁 시 국제사회의 대한(對韓) 물자지원 활동'이라는 보고서에따르면 인도네시아가 6·25전쟁 기간 한국의 막대한 피해 손실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전후복구를 위해 재정을 지원했다.

인도네시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재자를 자처했다. 2002년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은 그해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다. 메가와티 대통령의 방북은 오래된 북한과의 인연 때문이다. 1965년 김일성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수카르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정일을 함께 만난 바 있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방북 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한했으며, 3월 30일 김대중 대

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및 동아시아 등 지역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방한 의사 전달이 있었다.

2018년 8월 19일 붕카르노 주경기장에서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이낙연 총리와 리룡남 북한 내각부총리가 나란히 앉아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남북 정상회담은 성사시키지 못했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아시안게임 개회식 직전 이낙연 총리와 리룡남 북한 내각부총리와 삼자 환담을 하는 등 남북한 화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남북 공동응원단은 자카르타에서 짧은 순간이나마 강렬하고 짜릿한 한민족의 통일을 경험했다.

인도네시아의 선의에 대한민국도 화답했다. 1977년 11월 30일에는 최각규 농수산부 장관과 사르워 에디 위보워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쌀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쌀을 지원하여 줄 것을 한국 정부에 긴급히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심각한 자연재해로 식량이 부족하여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식량부족 해소를 위해 쌀 7만 톤을 대여하기로 신속히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에 첫 선적이 이루어졌다. 쌀을 수입하던 한국이 외국으로 쌀을 대여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새마을운동으로 한국의 영농기술이 획기적으로 혁신되었고, 연이은 풍작으로 주곡인 쌀이 자급선을 넘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아체주 서부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해 인도네시아인 20만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대참사가 발생한 직후, 한국 정부와 비정부단체(NGO)는 발빠르게 인도적 지원을 펼쳤고 한국 해군 보급선이 현장에 필요한 중장비를 한국에서 피해지역까지 직접 실어 날랐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를 통해 피해 지역에 병원과 학교를 지어주고, 쓰나미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장치 설비와 맹그로브 숲 조성 등 복구와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했다. 앞서 1992년 9월 1일 코이카의 제1호 해외사무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개설된 것은 한-인니 양국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방역물품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방호복으로 모범적인 협력을 이뤄내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이 '진정한 친구'임을 다시 확인했다. 당시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초기부터 인도네시아를 긴급 인도적 지원 우선 파트너로 선정하고, 50만달러 상당의 긴급 지원을 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협력을 이뤄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방호복'을 꼽을 수 있다.



Closer Friendship, **Stronger Partnership**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의료용품은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 당시 주인 도네시아 대사관은 인도네시아의 의료 장비가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돼 '어떻게 예외를 만들까' 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방호복 부족 현장을 같이 돕 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최일선 의료진들이 비닐 우비를 입고 환자를 이 송·진료하는 등 방호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봉제업체들이 생산한 방호복을 국내로 들여오는 한편, 일부는 인도네시아 의 료진에게 공급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

1997년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동시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도네시아 현지 한국 기업들도 위기를 맞는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정치, 경제와 사회적인 격변기를 맞으며 혼란 상황 에 빠지고 현지 한인사회도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한다. 특히 1998년 5월에 일어난 사태로 하인 5천여명이 비상 탈출하고 외국기업들이 철수하는 상황이었지만 대부분의 하인 기업 인들은 철수하지 않고 현지 직원들과 함께 직장을 지켜냈다. 이때부터 많은 현지인들은 자 신들이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함께한 한국인을 '진정한 친구'로 여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진정한 친구'로 협력한 미담은 수없이 많 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사건을 꼽자면, 1960년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기업에 산림 개발을 허가해준 덕분에 한국 합판산업과 산업화가 꽃을 피우게 됐고, 다시 한국 기업이 인 도네시아에 합판 공장을 세우면서 인도네시아도 합판산업을 키울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다 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협력했고, 특히 어려울 때 양국의 협력은 더 빛났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끝]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이사회

지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강현, 이하 코참)는 지난 5월 25일(목) 코참 회칙 ■ 개정을 위한 이사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제6대 코참 출범식에서 이강현 회장이 언급했던 회칙 개정에 관한 공략을 시행하기 위함으로 작년 중순 회칙 개정 위원회 발 족과 지난 3월 31일 회장단 회의를 거쳐 개최된 것이다. 이사회 참석 대상은 코참 회장단 52 개 사. 이사회원 34개 사 총 86개 사이며, 이날 27명이 참석하였고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 한 23개 사를 포함하여 총 50개 사로 회칙 제16조 7항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성원되었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칙 개정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여러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번 이사회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의의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최근 SK, 대상, LX 등 많 은 대기업이 회장단으로 활동하게 되었음에 대해 언급하며, 기존 토착 기업에 인니 진출 대기 업이 더해져, 명실공히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되었음에 감사함을 전 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계획된 한-인니 수교 50주년 행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 탁하며 인사말을 맺었다. 이후 2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회칙 개정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제공: 코참 사무국)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비과세 배당소득의 핵심은 배당 받은 소득을 인도네시아에 일정기간 투자하여야 하고 어디에 얼마간 투자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비과세 배당에 대한 조항으로 일차리창출법(일명 옴니버스법) 제 14조부터 24조까지, 제34조부터 36조까지 발췌하였다.

제 3 장

특정 기준, 절차 및 투자 기간,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절차 또는 세금 대상에서 면제되는 기 타 소득 투자 배당금 한도 변경

제 1 절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는 배당금

제 14조

- (1)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는 배당금
- a. 국내; 또는
- b. 국외.

납세자가 받거나 취득한 배당금

(2) (1) 항에 명시된 납세자는 국내 납세자이다

제 15조

(1) 국내 배당금

제 14 조 제 1 항에서 국내개인 납세자가 받거나 취득한 배당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

(2) 국내 배당금

제 14 조 제 1 항에서 받거나 취득한 국내 법인 납세자의 배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16 조

- (1) 인도네시아에 재투자된 제 14 조 (1)a 항의 배당금이 취득한 배당금보다 적은 개인납세자의 배당금은 재투자된 배당금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2) 상기 (1) 항의 차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제 17 조

- (1) 제 14조 (1) b항에서 국외에서 수령 또는 취득한 배당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2) 상기 (1)항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일정 기간내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기타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쓰여 지거나 재투자되어야 한다.
- (3) (1)항의 해외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 a. 국외 주식이 증권거래서에 거래되는 주식으로 받거나 취득한 배당금 또는
- b. 국외 주식이 증권거래서에 거래되지 않은 주식으로 지분 비율에 따른 배당금

제 18조

제 17조 3a 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국외 배당금은 일정기간 인도네시아 영토에 재 투자되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19조

제 18조에 언급한 배당금이 인도네시아 영토내에 재투자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재투자된 금액 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

제 20조

제 19조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제 21조

- (1) 제 17조 (2) 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제 17조 3b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국외법인의 배당은 반드시 일정기간 인도네시아 영토내에 재투자되어야 하고, 세후 이익의 최소 30%이어야 한다.
- (2) 상기 (1)항의 배당은 반드시 소득세법 18조 (2)항과 관련하여 배당에 대한 SKP 발급 이전에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
- (3) 상기 (1)항에 언급한 국세청에서 배당에 대하여 소득세법 18조(2)항에 따라 과세를 한 배당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4) 상기 (1)항에 언급한 배당은 2020년 11월 2일 이후 받거나 취득한 배당으로 2020년 세후 이익의 배당금

제 22조

- (1) 제 21 조 1항에 언급한 배당금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투자되는 금액은 세후 이익의 30%보다 미만이다. 배당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2) 세후 이익의 30%와 인도네시아에 투자되는 배당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17조에 따라 과세된다.
- (3) 세후 이익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된 배당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제 23조

제21조 (1)항에 언급한 배당금이 세후 이익의 30%를 초과하여 인도네시아에 투자되는 경우 투자된 배당금은 비과세 된다.

인도네시아에 투자된 배당금이 세후 이익 잔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제 24조

- (1) 제 14조 1항에 언급한 배당금으로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는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 a. 주주 총회 또는
- b. 법률에 규정된 중간 배당금은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
- (2) 상기 (1)항에 언급한 주주 총회 또는 중간 배당은 유사한 회의 및 유사한 배당금 분배 메커니즘이 포함된다.

제 4절

투자에 대한 기준, 절차 및 특정 기간

제 34조

제 15 조, 제 17 조, 제 26조 및/또는 제 29조에 언급된 투자 형태는 아래와 같다.

- a. 인도네시아 공화국 증권 및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샤리아 증권
- b. 금감원(OJK)의 감독을 받는 국영기업(BUMN)의 채권(Obligasi atau Sukuk)
- c. 금감원(OJK)의 감독을 받는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의 채권(Obligasi atau Sukuk)
- d. 샤리아 은행을 포함한 인식은행에 금융 투자
- e. 금감원 감독을 받는 사기업의 채권(Obligasi atau Sukuk)
- f.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체의 인프라 투자
- g. 정부가 결정한 우선 순위에 기반한 실제 부문에 투자
- h.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새로 설립 된 회사의 자본참여
- i.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이미 설립된 회사의 지분참여
- J. 투자 관리 기관과의 협력
- k.영세, 중소기업 법에 해당되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영세, 중소기업에 대출형태로 다른 비즈 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
- 1. 법률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다른 형태의 투자

제 35 조

- (1) 제 34 조 a에서 e까지와 l 항에 언급된 투자는 금융시장에 투자되는 수단은 아래 같다
- a. 중기 채권(medium term notes)을 포함한 채무 증권;
- b. 이슬람채권 (sukuk)
- c. 주식 (saham)
- d. 뮤추얼 펀드 단위 (unit penyertaan reksa dana)
- e. 자산 담보 증권 (efek beragun asset)

- f. 부동산 투자 기금 단위 (unit penyertaan dana investasi real estat)
- g. 정기예금(Deposito);
- h. 예금(tabungan)
- i. 지로 (giro)
- J. 인도네시아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한 계약 및 / 또는
- k. 금감원(OJK)에서 승인한 투자와 연결된 보험 상품, 금융기관, 연기금 또는 벤처 자본을 포함 한 기타 금융 시장의 투자 수단
- (2) 제 34 조 f 항에서 k항에 언급된 투자 수단으로 금융시장 밖에 투자되는 수단은 아래와 같다.
- a. 정부 협력을 통한 사업체의 인프라 투자
- b. 정부의 특정 우선 순위에 따른 실제 부문 투자
- c. 토지 및 / 또는 위에 세워진 건물 형태의 부동산 투자
- d. 인도네시아 국가 영토의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 e. 금괴 형태의 귀금속 투자
- f. 투자 관리 기관과의 협력;
- g. 영세, 중소기업 분야의 법률에 의한 인도네시아에 영토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다른 비즈 니스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
- h. 관련 법률 조항에 따른 금융시장이외의 다른 형태의 투자
- (3) (2) b항 및 d항에 언급된 투자는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에 자본 참여 메커니즘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 (4) (2)b항에 언급된 정부가 투자를 우선으로 하는 실제 부문은 국가 개발 계획에 명시된 부문을 포함한다.
- (5) (2)c항에 언급된 부동산은 정부가 보조하는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 (6) (2)e항에 언급된 귀금속은 금괴 또는 금괴로써 99.99 % 순도여야 한다
- (7) 상기 (6) 항의 금괴 또는 금괴는 인도네시아에 생산되어야 하고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인증 및 / 또는 런던 불리언 마켓 협회(LBMA)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제 36 조

- (1) 제 35 조에 따른 투자가 늦어도 아래와 같이 투자되어야 한다.
- 배당을 취득하거나 기타 수입을 획득한 과세 연도는 과세년도말로서
- a. 개인 납세자의 경우 3 번째 달 말; 또는
- b. 법인 납세자의 경우 4 개월 말
- (2) 제 35 조에 따른 투자는 과세연도의 배당을 취득 또는 기타 소득을 획득한 과세연도 이후부터 최소 3 (3) 회계 연도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 (3) 제 35 조에 언급 된 투자는 양도가 불가하지만, 제 35조에 언급된 투자 형태내에서는 가능하다. <끝>



2023년 5월 월간 뉴스 브리팃

제공:데일리인도네시아

<정치, 사회>

또 뒤집힌 인니 국기 이유는... 캄보디아 총리 사과

캄보디아에서 지난 5일 열린 제32회 동남아시아 게임(2023 SEA Games) 개막식 축하공연에서 인도네시아 국기가 거꾸로 뒤집혀 져 국기를 놓고 또다시 떠들석하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에서 열린 제42차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 가연합) 정상회담에 참석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에게 "실수로 벌어진 일이며,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고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의 말했다.

자카르타글로브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이날 개막식 축하 공연에는 참가국의 국기를 들고 무용수들이 등장했다. 인도네시아 국기를 든 무용수가 거꾸로 단 인도네시아 국기를 들고 나와, 마치 폴란드 국기처럼 보였다. 이에 인도네시아 네티즌으로 보이는 누리꾼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앞서 2017년 동남아시안게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개최국인 말레이시아가 안내책자에서 국기를 거꾸로 인쇄한 책자 때문에 인도네시아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인도네시아국기는 직사각형을 가로로 양분해 윗부분은 붉은색, 아랫부분은 흰색으로 표시하는데, 위아래가 뒤바뀌는 바람에 위가 흰색, 아래가 붉은색인 폴란드 국기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인도네시아 국민 사이에선 말레이시아국기를 거꾸로 게양하는 등 반발했다. 인도네시아 국기는 네덜란드로 부터 독립을 선언한 1945년 8월 17일에 정식 국기로 제정됐다. 인도네시아의 국기의 원형은 13세기 자바섬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의 인도네시아 군도에 세력을 형성했던 마자빠힛 왕조의 깃발에서 유래되



었고, 빨간색과 하얀색 가로 줄무늬로 구성되었다. '적백기'(赤白旗)를 의미하는 '상 메라 뿌띠'(Sang Merah Putih)로 불리는 인도네시아국기는 윗부분은 용기를 상징하는 적색, 아래쪽은 신성함을 나타내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인도네시아 국기가 자주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뭘 까?

인도네시아 국기는 서유럽의 프랑스 동남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 모나코의 국기와 형태와 색상이같다. 폴란드 국기는 윗부분이 백색이 아래쪽이 적색으로 되어 있어 인도네시아 국기가 뒤집힌 것같은 형상이다. 싱가포르 국기는 위쪽이 빨간색, 아래쪽이 하얀색이고 빨간색 부분에 하얀색 초생달과 별 다섯 개가 그려져 있어서, 언뜻 보면 인도네시아 국기와 비슷하다.

모나코 국기는 그리말디 왕조를 상징하는 색으로, 1339년에 처음 사용되었고 1881년 4월 4일에 제정되었다. 모나코의 국기 비율은 4:5(또는 2:3)로 싱가포르의 국기, 인도네시아의 국기와는 비율이 다르다.

2024년 총선, 정치 가문 4세 출마... 금수저 대거 출사표

인도네시아 주요 정치 가문의 2~4세들이 2024 년 총선에 출마를 예고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엘 리트(일명 금수저) 정치가문의 각축장이 되는 모 양새이다.

최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4년 총선에 출마 의사를 밝힌 정치 가문의 후계자는 적어도 3명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디아 삐까딴 오리사 뿌뜨리 합사리(애칭. 삔까 합사리)로 메가와티 수카르노뿌뜨리 투쟁민주당(PDIP) 총재의 손녀이자 뿌안 마하라니 국회(DPR) 의장의 딸이다.

런던 SOAS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한 삔까합사리는 아직 정치 경험이 없지만 할머니에게 정치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총선에 출마하게됐다. 메가와티는 올해 투쟁민주당 창당 50주년기념식에서 삥까 합사리와 그의 남자 형제인 쁘라바디왕까따 짜라까 뿌뜨라 소마를 당과 대중 앞에 소개했다.

메가와티 총재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장녀로, 인도네시아 첫 여성 대통령을 역임했고, 뿌안 역시 인도네시아 첫 여성 국회의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삔까는 이번에 투쟁민주당이 지명한 국회의원 후 보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리다.

투쟁민주당의 하스또 사무총장은 미국, 싱가포르 및 유럽국가에서는 유력 가문이 후계자를 교육해 정치권에 진출시키는 것이 흔한 일이라며, 투쟁민 주당도 유력 가문 출신 자녀들을 계속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삔까가 젊은 피 수혈이라는 당의 방침에 부합한다며, 당에서 선발한 다른 후보들과 똑같이 충분한 정치교육을 받았고, 당이 주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출마를 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삔까보다 앞서 정치권 진출 의사를 밝힌 인물은

국민수권당(PAN)의 당대표 줄키플리 하산의 딸 뿌뜨리 줄야 사비뜨리이다. 지난해 식용유 파동때 줄키플리 대표는 주민들에게 무료 식용유를 배포하면서 자기 딸인 사비뜨리를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논란이 된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족들도 차기 선거에 출마하 겠다고 밝혔다. 서부자바주 보고르 시장 비마 아리야의 아내 야니 아르디안과 서부자바주 주지사리드완 까밀의 아내 아딸리아 쁘라라띠야 까밀이그들이다.

이슬람계 정당인 월성당(PBB)의 유스릴 이자 마 헨드라 당대표와 그의 아들 유리 끄말 파둘라는 나란히 총선에 출마한다. PBB는 2019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딸로 띠띡(Titiek)이라는 애칭으로 널리 불리는 시띠 헤디아띠 헤리야디는 유력 대선 후보인 전 남편 쁘라보워 수비얀또가이끄는 그린드라당 당적으로 총선에 나선다. 띠띡은 2012년 골까르당에 입당해 2014년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16년에 막내 동생 또미 수하르토가 버르까르야당(Berkarya Party)을 만들자 잠시 그쪽으로 이적했다가 탈당했다. 띠띡은 쁘라보워 총재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BRIN(국가연구혁신청.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의 정치 연구원인 피르만 누르는 이러한 현상은 당이 선거에 출마할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후보를 찾는 대신 전 · 현직 지도자와 관련 있는 인물을 공천해 쉽게 선거를 치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수준에 못 미치는 당원을 배출하고 엘리트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엘리트의 엘리트에 의한 엘리트를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젖줄 메가프로젝트 까리안 댐 올해 연말 완공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 2천억 원 규모 까리안 광역상수도 국제경쟁입찰사업 수주



반뜬주에 위치한 까리안 다목적 댐(Bendungan Karian)이 7년 동안 장기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에 공식 완공될 예정이다.

자카르타 수도권의 젖줄이 될 다목적 까리안댐은 반뜬주 르박군에 위치해 있으며 자카르타에서 남 서쪽으로 70km 떨어진 찌우중 강 상류에 있다. 댐 구조물 건설공사는 이미 마쳤으나, 침수지역의 토지수용 절차가 90%가량 진행되고 있다고 최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까리안댐과 도수로가 가동되면, 반뜬과 자카르타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물 부족 현장을 해결하고 홍수와 가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한다. 아울러 농업용수 및 자카르타와 땅그랑의 생활·산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력발전을 통해 1.8메가와트의 전력 생산은 물론 관광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길이 516m, 높이 63m 규모로 최대 3억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인 까리안댐은 인도 네시아에서 세번째 규모이다. 최대 규모 다목적댐 은 서부자바주 뿌르와까르따 지역에 있는 자띠루 흐르댐 이어 서부자바주 스므당 지역에 있는 자띠 거대댐이다. 대림산업과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회사인 위까 및 와스끼따와 공사를 함께 수행한 이 프로젝트는 한 국에서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 환경부 2021년 1월 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천억 원 규모의 까리안 광역상수도 국제경쟁 입찰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현지 기업과의 경쟁 끝에 최종 수주했다.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은 까리안댐을 수원으로 하여 자카르타주, 땅그랑시, 남부땅그랑시 3개 지자체에 하루 약 4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돗물 공급량은 200만 명에게 공급 가능한 규모이다.

사업비 조달에도 한국의 여러 개발금융 지원자금을 활용했다. 까리안댐 건설 및 댐에서 정수장까지의 관로 설치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으로 진행중이며, 이번에 수주한 사업인 정수장 및 정수장에서 각 지자체까지의 관로 건설과 운영관리는 민관합작투자(PPP) 사업으로 진행된다.

HSBC "2023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5% 못 미칠 것"

올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인도네시아가 선거 정국으로 돌입함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되 면서,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5%에 못 미 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글로벌 은행 HSBC가 전망 했다고 26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HSBC 글로벌 리서치의 인도 · 인도네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프란줄 반다리(Pranjul Bhandari) 는 내년에 인도네시아 대선과 총선이 예정되어 있 고, 투자자들은 종종 투자자들은 이를 불확실성으 로 인식하고 '관망세'를 취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국가예산안에서 2023년 경제성장률을 5.3%로 전망한 것과 대조적으로 HSBC는 5%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본 것.

반다리는 "올해는 고도 성장의 해가 아니라 좀 더 점진적인 성장 회복의 해"라며, "2024년 총선 외에도 세계 경제 약화의 영향이 인도네시아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최근에 경기 침체에 진입한 국가는 독일이라며, 독일이 올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ed)가 국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다시 인상하기로 결정한 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통화 긴축에 착수했다. 미국 연준은 지난 5월 2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75~5.00%에서 5.00~5.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는 2007년 중반 이후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제학자들은 세계 경제 약화와 각국의 통화 긴축 움직임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수출 상품 수요 를 포함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다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정적자 한도를 GDP의 3% 미만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에 인도네시아 재정적자는 GDP 대비 2.38%였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2020년 말에 재정적자가 GDP 대비 6%를 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정부지출은 올해 1분기 GDP의 5% 이상을 차지했다.

서방 국가들이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인 플레이션이 급증한 반면,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성장세가 점진적이지만 안정적이라고 말 했다.

반다리는 내년에 세계 경제가 나아지고 통화 긴축이 완화되면 인도네시아 경제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고 모든 중앙은행이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멈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글로벌 통화 긴축에 대응해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인 7일물 역레포금리(7DRRR)를 총 225bp(basis point) 인상해 5.75%로 조정한 후 4개월 연속 이를 유지하고 있다.

반다리는 BI가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장기적으로 루피아가 안정되면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2024년 초부터 금리를 7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선어의 **১**/도는 꾸준함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저자

이번 호에서는 {per-an}, {peN-an}, {ke-an}을 구분하는 공부를 해 봅시다.

사실 차곡차곡 {per-an}, {peN-an}, {ke-an}을 공부하긴 했어도 한 데 모아두고 비교하려면 헷갈리지 않았는데도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건 처음 비교를 해 보는 거기 때문에 겪는 당연한 시행착오니까 한번에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려니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저절로 돼요. 그때까지 공부를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따라. 공부를 알 때까지 하면 아는 거고, 중간에 그만 두면 사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알려면 읽기를 많이 하고, 자꾸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단순히 인-한 사전에서 본 한국말로 뜻을 외운다고 해서 그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녜요. 항상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 질문하면서 공부하시면, 언젠가는고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는 것도 되물으면 고수가 됩니다.

<Jalan Bahasa> 문법책에 나오는 연습문제를 풀어봅시다.정답은 문제를 다 푼 다음 확인해 보세요.

◆{peN-an}, {per-an} 둘 중에 어떤 형태로 파생시키면 될지 생각해 보세요.

- [1] Titipkanlah barang-barang Anda di tempat (titip) barang. 물건 보관소에 소지품을 맡기세요.
- [2] Untuk menurunkan jumlah (tambah) penduduk, pemerintah Indonesia melaksanakan program Keluarga Berencana.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구가 느는 것을 줄이기 위해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했다.

- ভেলা E: Pemerintah Indonesia melaksanakan program Keluarga Berencana karena jumlah penduduknya semakin bertambah.
- [3] (lihat) orang tua sudah sangat menurun karena penyakit yang dideritanya. 부모님은 지병이 있어서 이제는 시력이 많이 떨어지셨다.

- [4] (ubah)sikapnya benar-benar menyenangkan hati orang tuanya. 그(녀)의 태도가 변해 부모님이 정말 기뻐했다.
- [5] Dosen memberi (ingat)...... kepada mahasiswa yang sering absen. 자주 결석하는 학생에게(대학생에게) 그 강사는 경고를 했다(경고를 줬다).
- [6] Undang-undang melarang (tangkap) burung Cendrawasih tanpa izin. 츤드라와시 새를 허가 없이 포획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조금 곁가지 설명을 덧붙이면, program pertukaran mahasiswa 이걸 인니어 스타일로 놔두면 대학생교환프로그램인데, 한국어에서는 우린 '교환학생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한국어가 그렇다고 해서 인니어가 또 program mahasiswa pertukaran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색한 표현이죠.

[8] Siapa yang akan menangani (kembang) usaha tani di desa ini? 이 마을에서 농업사업 발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농업 사업을 육성시키는, 발전시키는)

★perkembangan, pengembangan 은 한국어 단어로만 외우면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없고, 두 단어는 이렇게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Mengembangkan 뭔가를 키우다, 육성하다 mengembangkan industri 산업을 육성하다 이 것의 파생 명사가 pengembangan

berkembang 사람들이 열심히 육성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니까, 그 결과로 무언가가 발전하다 Industri pertahanan di Korsel sangat berkembang.

한국의 국방산업은 매우 발전돼 있다. Perkembangan industri pertahanan di Korea Selatan dapat terwujud atas upaya puluhan tahun. 한국의 방산 발전은 수 십 년 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Pengembangan teknologi sangat penting.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Pengembangan ekosistem kendaraan listrik adalah salah satu program prioritas Pemerintah Indonesia. 전기차 생태계 육성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역점사업이다).

- [9] Kelihatannya (kembang)...... kemampuan anak itu agak lambat. 그 아이는 발육이/발달이 좀 느린 것 같다.
- [10] Indonesia memiliki wilayah (air) yang luas. 인도네시아는 넓은 영해를 보유하고 있다. 힌트 : 넓은 해역

- [11] Siapa yang menangani urusan (air) sawah di desa itu? 그 마을에서 논 관개 담당자가 누군데? 힌트 : 물을 주는 행위
- [12] (sahabat) kami sudah berlangsung lama. 우리의 우정은 꽤 오래되었다.
- ★bersahabat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①Dua negara itu kurang bersahabat. 그 두 나라는 사이가 안 좋다. ② Dua negara itu bermusuhan. 그 두 나라는 서로 적이다.

걔네들 서로 안 친해= Mereka kurang akur. ③ Cuaca hari ini kurang bersahabat. 오늘 날 씨가 좀 안 도와주네. 오늘 날씨가 좀 별로네. 이런 표현으로도 써요.

[13] Masyarakat menunggu (temu)...... obat AIDS.

사람들은 에이즈 약이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건 구분이 너무 쉬운 문제예요)

pertemuan만남 (면담, 모임, 회동, 회담) ← bertemu 만나다

penemuan 발견 ← menemukan 발견하다

[14] Kami sedang menunggu hasil (temu) menteri-menteri yang membahas masalah harga BBM. 저희는 BBM 가격에 대한 부처 간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단어와 구조 그대로 옮기게 되면 인도네시아의 특성이 남는 번역투가 됩니다.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요. 이 문장을 단어와 구조 그대로 위 문장을 바꾸면, "우리는(저희는) / 장관들의 면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BBM 가격 문제에 대해 논의한 장관들의 면담의 결과 "→이 문장을 좀 더 매끄러운 한국말로 어떻게하면 될까 고민해 보면, 답이 쉽게 나올 거예요.

☞ 정답

[1]penitipan [2]pertambahan [3]penglihatan [4]perubahan [5]peringatan [6]penangkapan [7]pertukaran [8]pengembangan [9]perkembangan [10]perairan [11]pengairan [12]persahabatan [13]penemuan [14]pertemuan

◆이번에는 {ke-an}, {per-an}을 구분하는 연습문제를 풀어 봅시다.

평소에 읽기 훈련이 좀 되어 있으면 보자마자 답이 나올 텐데 (그런 걸 감!이라고 하죠)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이참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겠다고 생각하세요!

- [1] Anak saya ingin masuk ke sekolah (kehotelan / perhotelan). 저희 아이는 호텔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해요.
- [2] Kita harus memilih (keguruan / perguruan) tinggi yang bermutu. 우리는 퀄러티있는(훌륭한) 대학교(고등교육기관)를 선택해야 한다.

- [3] Pengajar itu lulusan fakultas (keguruan / perguruan) di universitas ini.
- 그 강사는 이 대학의 교육학부(사범대처럼)를 졸업했다 (교육학부 졸업생이다)
- [4] Lembaga (kepresidenan / perpresidenan) akan mengeluarkan kebijakan baru. 대통령 관련 기관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 [5] Kementerian (keindustrian / perindustrian) akan mengeluarkan kebijakan baru. 산업부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 [6] Mereka akan mendiskusikan masalah (kepajakan / perpajakan) di Indonesia. 그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의 세금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이다.
- [7] Polisi akhirnya menemukan lokasi (kesembunyian / persembunyian) pelaku pengeboman.

경찰은 마침내 폭탄테러범의 은닉처를 발견했다.

[8] Ahli (keternakan / peternakan) sedang berusaha mengatasi wabah penyakit yang menyerang ternak-ternak di daerah ini.

**맞춤법주의! per.ter.nak.an (x) pe.ter.nak.an (o)

축산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가축들이 걸린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 Masyarakat dunia menghadapi tentang(an) besar dalam mengatasi masalah (kema-nusiaan / permanusiaan).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큰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 [10] Lomba ini bisa diikuti baik oleh kelompok maupun (keorangan / perorangan). 이 대회는 단체 또는 개인이 참가할 수 있다.
- [11] Industri (kebankan / perbankan) berkembang pesat dalam 5 tahun terakhir ini. 은행 업계는 최근 5년간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 (급속하게 발전했다)

☞ 정답

[1]perhotelan [2]perguruan [3]keguruan [4]kepresidenan [5]perindustrian [6]perpajakan [7]persembunyian [8]peternakan [9]kemanusiaan [10]perorangan [11]perbankan

2019년 2월호 <나는 바하사로 수다떤다>를 시작으로 2023년6월호 <문법왕>까지 한정된 지면으로나마 인도네시아어를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원고 마감 기한이 다가 올 때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처음 시작할 때의 설렘도 생각납니다. 원고를 쓰면서 제가 그 동안몰랐던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희열을 앞으로도 오래, 드문드문 기억하고 싶습니다. 한인뉴스 지면을 10년 넘게 채워 주고 계시는 분들에 비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담지 못해 아쉬움 남고, 또 언젠가 인도네시아의 한인 교민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닿길 기대해 봅니다. 그 동안 관심을 표현해 주시고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 질문대환영 kayakarya@haver.com

--- 6月11가 맛집! ---

Hoshino Coffee Lotte Shopping Avenue

황지영(PT. Prime Freight Indonesia)

어는 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이 빨라요~ 벌써 일 년의 반이 흘러 6월이네요!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마다 "뭐 했다고 올해도 벌써 이 만큼이나 지났지?" 하고 매번 놀라게 되 네요. 느린 듯 넋 놓고 보고 있다 보면 어느 샌가 멀리 날아가버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시간은 그렇게 훅 흘러 가버리는 것 같아요. 6월 또한 그렇게 흘러가겠죠? 나중에 돌이켜 보았 을 때, "그때 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런 후회로 가득 찬 시간 말고 "그래도 이 만큼 했네. 이만큼 성장해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보람찬 반년의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 드릴 식당은 일본풍 양식집인 Hoshino Coffee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돈까스, 고로케, 오무라이스, 나폴리탄 파스타 등등과 같은 경양식이 일본풍 양식인데요. 이런 일본풍 양식은 'yōshoku'라고 불립니다. 기원에 대해 살짝 설명드리자면, 일본 메이지 유신 시대가 시작되면서 서양 문화 개방과 함께 천왕은 서양인들의 신체 발달이 육식과 관련이 있다고 판 단하여 육고기 요리를 장려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일본에 들어와 있던 많은 서양인들은 명란젓과 같은 전통적인 일본 요리 재료 손질을 거부하였고, 그들의 개인 요리사들이 그 재료 들을 가지고 서양식으로 요리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yōshoku'는 일본인들이 서양 요리 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적응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 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치킨라이스와 오므라이스 같은 유럽 음식에는 전혀 기반하지 않은 요리도 발전시켰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동안에는 'yōshoku'가 일반 서민에게는 너무 비싼 요리였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yōshoku' 요리 재료들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대중적인 요 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식당에 들어가 보시면 경양식집 특유의 클래식한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우드톤으로 된 테이블과 의자들이 있고, 빠질 수 없는 샹들리에까지. 그리고 역시 일식풍 양식집이라 그런지 한쪽에 자리 잡은 좌석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는 일인용 테이블과 소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혼밥 하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좋은 혼밥 식당을 찾은 거 같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하하,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 소개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소개드릴 요리는 Mentaiko Carbonara (115,000 루피아 ++)입니다. 멘타이코는 일본어로 명란이라는 뜻인데요. 치즈로 끈적하게 요리된 까르보나라가 아닌, 어릴 때 집에서 만들어 먹던 우유로 자박하게 조리하여 고소한 맛이 일품인 그런 까르보나라입니다. 이제 그위에 짭조롬한 명란과 김가루가 올려져 있고, 또 고소한 맛을 더 해줄 노른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꾸덕한 치즈로 조리된 전통 까르보나라는 아니지만 또 우유



로 그 고소한 맛을 잘 표현하였고, 짭조롬한 일본식 재료인 명란과 김가루를 얹은 이 요리야 말로 일식풍 양식의 특징이 가장 잘 녹아져 있는 요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릴 때 먹던 집 에서 엄마가 해 주시던 까르보나라. 혹은 저렴한 경양식 집에서 팔던 까르보나라. 딱 그 맛입 니다. 이 요리를 먹으며 저는 잠시 향수에 젖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요리로 잊었던 어린 시절 의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Cheesy Chicken Cutlet (115,000 루피아 ++)입니다. 이 요리 는 그냥 한국말로 쉽게 치츠 치킨 카츠인데요. 이런 카츠 또한 우리가 돈까스로 잘 알고 있듯. 일본식 양식으로 유명하죠. 커틀렛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카츠 레츠인데 편의상 카츠로 부 르게 되어, 돼지 커틀렛하면 돈(일본어로 돼지) 카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다시 이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 보자면, 다진 닭고기가 아닌 오동통한 닭 허벅지살이 그대로 튀겨져 더 욱 부드럽고 육즙이 팡팡 한 치킨까스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가끔 냉동 치킨까스는 그냥 다진 닭고기육에 튀겨져 있어 가끔 그냥 저렴한 용가리 반찬 맛이 날 때가 많잖아요. 이 집은 닭 다리살 본연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쭉쭉 늘어나는 고소한 모짜렐 라 치즈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잘 늘어나는 치즈를 찾기 어려운데 이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점은 같이 주는 샐러드 야채에 당근라페가 있었 어요. 당근 라페는 채 썬 당근을 올리브유, 후추, 레몬즙과 함께 버무려 피클처럼 먹는 반찬인 데요.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치즈 치킨 까스를 당근 라페와 한번 같이 드셔 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Omu Souffle Curry (95,000 루피아 ++)입니다. 퐁실퐁실한 계란 수플레가 올라간 카레 오므라이스 인데요. 일단, 계란 수플레가 예쁘게 만들어져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만족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칼로 가를 때는 마음의 안정이 느껴진달까,,, 하하 여러분도 그런 느낌 아시나요? 부드러운 계란 수플레와 카레라이스를 비벼 드셔 보세요. 물론 우리가 아는그 카레 맛이지만 퐁실퐁실 부드러운 계란과함께 먹으면 맛있음은 배가 되겠죠.

사실 저는 뼛속까지 한국인인지 카레 먹으면서 김치가 엄청 그리웠어요. 다른 메뉴에서 제공하는 피클 같은 것들과 같이 드시면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고려해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므라이스 또한 일본 풍 양식에서 빠질 수가 없잖아요. 추천 드립니다.

거의 반이 지나 버린 일 년이 아쉽기도 하시겠지만, 이때까지 잘 달려왔으니 앞으로는 더 잘 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바쁘게 달릴수록 하늘을 보는 일이 적다고 합니다. 6월은 노을이 아주 예쁘다고 하는데요,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지만 짬 내서 예쁜 하늘 틈틈이보며 여유를 좀 찾는 그런 6월 되세요! 저는그럼 7월에 또 맛있는 집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 정보 :

Hoshino Coffee- Lotte Shopping Avenue

음식 종류: 일본식 양식

가격대 : Rp 200,000-28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오전 11:00- 오후10:00

주소: Unnamed Road, RW.4, RT.18/RW.4,

Kuningan, Karet Kuningan, Setiabudi,

South Jakarta, 12940

※ Google 참고

[미래전망] 2023년 이후 등장할 시사용어 23가지 우리 앞에 놓인 미래세상은?

2023년에 주목을 받으며 등장한 시사용어 23가지를 소개한다. 이는 영국 주간신문인 The Economist 의 '2023년 세상' (The World Ahead 2023) 에서 실린 내용이기도 하다.

자체가 전망이니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고, 너무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 2023년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등장하며, 화두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우리들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눈겨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지난호에 이어 알아보자.

암호키/패스키/통과키

Passkeys

2023년이 시발점이 될 지 확실치 않으나, 이제는 점점 일일이 암호를 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문, 안면인식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암호를 사용하는 기술이 더 발전하고 적용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형 IT 회사들이 이런 패스키 기술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제는 패스워드(비번)가 아니라 패스키(어쩌면, 비키?)로 용어도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한글명칭은 암호키라고 해야 할 듯 하다.

원래 암호인 password는 군대에서 '군호'라고 했고, 어느 지역을 통과하거나, 특정 장소를 입장를 입장하기 위한 식별을 위한 사전에 약정한 암호를 의미하는 뜻에서 pass + word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수직적 및 수평적 확전

Horizontal and vertical escalation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났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크림반도를 재탈환한다면, 러시아는 이에 대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전쟁 양상이 '수평적인 확전'과 '수직적인 확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수평적인 확전은 '지리적인 의미'로 러시아가 우크레이나 외에 다른 지역(국가)도 침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수직적인 확전의 의미는 '전쟁의 공격 형태와 방법'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전략 핵무기

Tactical nuclear weapons

한국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면서, 전략/전술을 언급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자.

전략은 전술보다 상위 개념이고, 전술은 전쟁방식을 의미하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위한 가장 하위 개념이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용어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영어로 tactic(al) 과 strategy 는 전략/전술로도 혼용되어 번역/해석 된다는 점이다.

(다음호에 계속)



여행하듯 머물던 자카르타 생활의 끝자락에서

글: 손예리(일본어 번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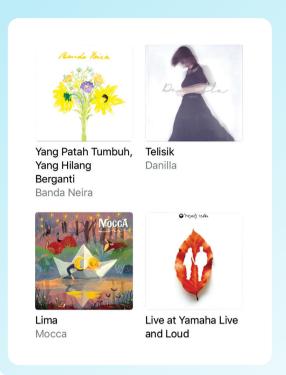
여행은 대개 끝이 있다. 그러나 살면서 확실한 끝이 보이는데도 시작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처음부터 끝나는 날을 알고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언제 그만둘지 정해놓고 취직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은 돌아갈 날짜를 정해놓고 떠난다.

-사운드라이브러리 <여행의 끝자락> 중에서

일본 라디오 소설을 번역하면서 새삼 알게 되었다. 여행은 '끝나는 날을 정해놓고 시작한다'는 것을 말이다. 인생도, 연애도 언젠가 끝나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어도 우리 모두는 그마지막 날을 알지 못 할뿐더러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행만큼은 그 여행의 마지막 날을 정해놓고 시작한다. 기간한정 상품에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그 자체가 특별하게 다가오듯, 기간한정여행은 끝이 있기에 그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대한 즐길 수 있다.

자카르타에 처음 왔을 때도 끝나는 시기를 알고 시작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시간이 여행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다. 설레는 여행자 세포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여행이 오래 되면 처음의 낯선 여행지도 의식주가 있는 보통의 삶의 공간이 되고 생활이 된다. 생활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늘 가던 곳, 늘 먹는 음식, 늘 하는 일처럼 패턴이 생기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마음도 엷어진다. 그리고 그때쯤 깨닫는다. 이곳 자카르타에서 여행 종료 버튼을 누르고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되감기 버튼을 눌러 지난 4년여의 자카르타 시간들을 곱씹어본다.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하타 공항에 도착한 첫날을 떠올려본다. 코 끝으로 훅들어온 그날의 후덥지근한 공기와 유독 깜깜했던 밤, 히잡을 쓴 사람들의 모습과 기도실을 알리는 생경한 표지판, 차를 타고 자카르타 도심으로 들어올수록 화려하게 빛나던 근사한 고층빌딩들의 모습. 그 모든 풍경과 냄새, 소리가 이질적인 두려움이 아닌,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다. 지역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왠지 모르게 자신과잘 맞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내게 전자였다. 그렇게 처음부터호감으로 시작했다.



자카르타에서 생활한 지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처음 듣게 된 인도네시아 팝의 세련된 멜로디와 영혼을 울리는 듯한 가수들 목소리에 매료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게 외국 노래는 영어권 팝 과 일본노래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마치 숨겨진 보석처럼 다가온 인도네시아 팝의 감미로운 선율 과 감성적인 가사들이 내 맘을 위로했다.

라이브 연주를 듣자마자 단번에 빠져버린 가수 'Payung Teduh'의 〈Untuk Perempuan yang sedang dalam Pelukan(지금 내 품 안의 그녀를 위해)〉, 예전에 '푸디토리움'의 〈비아잔떼〉라는 노래를 좋아했는데 비슷한 느낌의 세련된 선율이 인상적이다. 인디밴드 느낌의 'Banda



Neira'의 〈Sampai Jadi Debu(먼지가 될 때까지)〉는 특히나 새벽 감성의 힐링곡이다. 그 밖의 인도네시아의 '아이유' 같은 싱어송라이터 'Isyana Sarasvati(이시야나사라스바티)'의 노래는 얼핏 들으면 서양의 팝송과 크게다르지 않다. 싱가폴의 난양예술대와 영국의 왕립음악대 출신인 그녀는 오페라 가수와 배우로도 활동하는 다재다능한아티스트다. 'Hanin Dhiya'가 부른 감성적인 발라드 노래 〈Waktunya Sendiri(혼자 있을 때)〉도 추천곡이다. 여행지에서 들었던 음악들이 그 시절의 나와 연결되어 있듯이,이곳에서 들었던 인도네시아 팝들은 이 시절을 떠올릴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인가? @Monolog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잘 알지 못 하는 타인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받 는다. 자주 가는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 컵에 써 주는 문구도 그 중 하나 다. 늘 반가운 눈웃음을 지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나를 반겨주는 그 녀의 한국어는 서툴지만 참 따뜻하다. 그들의 이러한 미소와 친절한 마 음 하나 하나가 쌓여 나에게 인도네시아는 정이 많은 선한 나라로 제 일 먼저 기억되는 것 같다. 외국인들에게 더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배 려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가 곧 자기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타벅스 직원이 건넨 따뜻한 인사

여행지에서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아이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로운 첫 경 험이기에 인상적이고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 서울과 똑같은 24시간일텐데 자카르타에서의 지 난 4년여의 시간은 그 농도와 밀도가 더 진하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단 며칠을 있어도 누군가는 인생의 방향을 새로이 정하고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기도 하나보다. 그것이 여행이 우리에게 주 는 의미일 것이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시간이 정해진 여행 같은 삶이었기에 머물듯 여행하듯 보낼 수 있었다. <여 행 정신>이란 책에서 작가는 말한다. "우리는 장소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바꾸기 위 해서 여행한다"고 말이다. 여행 같았던 자카르타 생활의 종료 버튼을 눌러야 하는 날이 다가오 고 있다. 조금 더 지난 시간들을 되감아보며 어쩌면 정지 버튼을 여러 번 누르고 싶은 순간이 떠 오를지도 모르겠다.



인도네시아 책 <우린 훗날 오늘을 얘기하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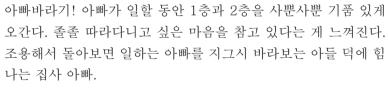
스칼렛 미용실을 지키는 용감한 냥이 형제 '양이와 몽이'



(오른쪽) 큰아들 양이: 16개월 형 (왼쪽) 작은아들 몽이: 12개월 동생

묘종: 라가머핀(Ragamuff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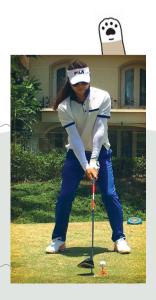
성격: 조용하고 온순하며 사람을 좋아한다.



생후 2~3년이 지나야 포인트가 자리잡고 4년이 되어야 외모가 고정된다는데 벌써부터 미모 완성이면 어쩔냥? 아들들아, 너희들 이 미래가 기대되는구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에옹에옹, 아빠, 나이샷~

* 스칼렛(Scarlett) 미용실: 15138 Banten, Kota Tangerang, Kec. Cibodas, Panunggangan Bar. Ruko Palais, Lippo / 08128388774



2023 청소년 통일골든벨

문서현(JIKS 10, 학생기자)







2023년 5월 27일 토요일, 민주평통 인도네시아 지회(지회장 이세호)는 자카르타 한 국 국제 학교 (JIKS)에서 '제 7회 통일 골든벨'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9~12학년의 한인 학생들과 인도네시아 4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 공하는 대학생 39명이 참여한 열정과 도전의 퀴즈대회였다.

이날에는 주인니대한민국 이상덕 대사, 재인니한인회 박재한 회장, 재인니한인상공 회의소 이강현 회장, 자카르타한국국제 학교 이선아 교장, 인니축구국가대표팀 신태 용 감독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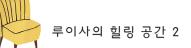
제 7회 골든벨은 객관식, 주관식, ox 유형으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 통일에 관한 문제 들이 출제되었으며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뜨거운 의지를 불태 우며 열심히 문제들을 풀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문제들 또한 한국어로 어려 운 단어들을 사용한 한국 학생들의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더욱 시선을 모았다.



UNAS 한국어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디아나 울란다리(25)씨와 노연우(JIKS 10) 학생이 최후의 1인이 되어 대상을 받았고, 노연우 학생과 최우수상을 받은 권민우 (Global Jaya School) 학생 모두 작년 제 6회 골든벨에서 이미 상을 탄 경험이 있 는 학생들이었기에 두 사람의 여전한 통일 골든벨을 향한 열정에 모두 감탄하였다.

이후 이러진 MK 태권도 어린이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과 LEE J 댄스 크루의 공연 또 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청소년 통일 골든벨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많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역 사와 통일, 그리고 문화에 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미래에는 대 한민국이 통일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여행: '택시 안에서'

글: 루이사(한국문학번역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사람들은 봄을 '사랑의 계절'이라 부른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희망 가득한 새싹들이 피어나는 계절이기도 한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계절인 만큼 봄에는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싶고 여기저기돌아다니면서 예쁜 꽃들도 보고 싶을 것이다. 어느 덧 봄의 끝자락인 6월의 따스한 햇살도 우리의 열정처럼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사랑과 열정을 말하면 한국에서 봤던 연극 <택시 안에서>가 생각난다.

인도네시아에서 연극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생활을 찾기 어려워, 한국을 가게 되면 무조건 찾아가서 즐겨보는 편이다. 친구 덕분에 연극 <택시 안에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연극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대학로 소극장에서 본 연극은 처음이었다. 마른 땅에 비 내린 냄새가 잔뜩 배인 어느저녁, 혜화역에 나와서 우산을 들고 해바라기 소극장으로 향했다. 대학로에는 다양한 연극을 즐길수 있고 놀거리와 먹거리가 많아 데이트 장소로도유명한 곳이다. 대학로를 지나가면서 공기가 '청춘'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대학로 해바라기 소극장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극장이 정말 아담했다. 75분짜리 연극인데 의자 가 작아서 불편할까 걱정도 했다. 세트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고 배우도 세 분 밖에 없었다.

스토리는 하영과 소희라는 두 주인공의 연애 이 야기로 시작되었다. 오랜 연애 끝에 하영과 소희 는 이별하게 되었고, 이별의 상처로 소희는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하영은 소희를 만나기 위해 공항으로 택시를 급히 타게 되는데 공항까지 도착 시간은 75분이다. 택시 안 75분 동안에 하영은 유쾌한 택시 기사 민수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극 내내 하영의 회상 장면을 몇 번 나왔다. 사실 하영은 연애를 늦게 시작하고 연애를 잘 모르는 남자였지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운명적인 만남 으로 소희와 사귀게 되었다. 연애 초반의 설렘 그 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쌓인 오해와 다가오는 권 태, 연애해 본 사람들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 남자친구가 생각나기도 하고 여 자로서 소희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눈물도 났다. 중간중간에 하영은 소희와의 연애뿐만 아니라 친 구, 직장 상사, 그리고 본인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택시 기사 민수에게 털어 놓았다. 내성적인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었다. 포스터 에는 로맨스 코미디 연극이라고 하는데 물론 웃 음 포인트가 많지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장면 도 많았다. 전혀 생각도 못한 캐릭터의 변신과 반 전의 반전으로 스토리가 탄탄하고 배우가 세 분 밖에 없었지만 탁월한 연기로 무대를 꽉 채웠다.

가끔 하영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떠난 후에 그 사람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서 후회하곤 한다. 있을 때 잘할 걸. 그래서 후회하기 전에 꼭 사랑



하면 사랑한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은 우리 마 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가 족, 연인, 친구, 익숙해지면 당연하듯이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하듯이 생각하 고 상대방의 입장을 제대로 생각한 적이 없다면 상대방도 지치고 속상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도 계속 배려하는 마음도 좋지만 가끔 우리가 생각하 는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해야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영의 이야기 중에 어머니 이야기도 있는데 하영

의 어머니 보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도 났다. 자녀 앞에서는 그저 멋있고 강인한 부모님이지만 안방 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울기도 한다 는 것을. 우리가 성장할 때 부모님은 점점 늙어가 는 중이다. 나처럼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이 글을 읽고 부모님께 통화 한 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좋은 계절이다.

"어쩌면 서운한 감정을 감춰 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여자의 언어와 남자의 언어는 너무 달라서 서로 말하지 않으면 **生午 体."** (연극 <택시 안에서> 중)

서상영의 한방칼럼1

안녕하세요. 미르한의원 서상영입니다.

저희 미르한의원은 통증 전문 한의원으로써 근육, 관절, 신경 일체 통증 치료를 하고 있으며 소아과(허약체질, 성장), 부인과(생리불순, 자궁근종), 순환기내과(심장병, 중풍), 정신과(우울증, 화병, 공황발작) 등 세심한 진료와 신속한 효과로 자카르타 한인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환자를 돌보는 의원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한결같은 자세로 진료해 나가겠습니다.

허리통증

요통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의 하나로 운동이나 물건을 들거나 짚는 동작 등으로 급성 허리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가족력이나 운동 부족, 잘못된 자세, 노화 등으로 만성 허리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급성 허리통증이 발발하면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안정을 취하고 당일은 냉찜질하거나 붕대나 보호대로 보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 치료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성 허리통증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직업병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허리디스크나 좌골신경통, 협착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온찜질 을 하거나 10분 정도의 가벼운 마사지, 스트레칭을 해주면 만성 허리통증을 예방할 수 있 고 통증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급성 허리통증과 만성 허리통증은 대부분 근긴장(근육이 일종의 수축 상태를 지속하는 일) 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허리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평소 잘못된 자세를 오 래 유지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부하거나 일하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며, 복 근, 엉덩이, 허리, 허벅지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자신의 취약한 부 분을 단련하면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코어 운동을 해주면 됩니다.

임상에서 주기적으로 허리통증이 발생하거나 오래 앉아있으면 불편하고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힘드신 분들은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령별로 허리통증

■ 10대: 남성의 경우 척추측만증이 대표적입니다. 운동 시간 부족, 학업과 컴퓨터, 스마트 폰 사용 증가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척추가 뱀처럼 휘어지면서 통증이 점차 심해 져 똑바로 서도 구부정해 보이고, 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예방법으로 1~2시간씩 5~10분 정도 스트레칭과 가벼운 산책을 해주고, 근력강화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앉아있을 때 너무 구부정하거나 비뚤어지지 않도록 자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통 때문에 허리통증을 동반할 수 있는데 생리통이 끝나면 자연히 없어지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만큼 통증이 심하거나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 진료를 받아보길 권합니다.

- 20대: 혈기 왕성하고 근육량도 많아 허리가 튼튼하지만, 운동이나 격한 활동으로 근육 및 인대에 무리가 가거나 손상되는 경우, 허리통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근육이나 인대 문제이므로 휴식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됩니다.
- 30~40대: 왕성하게 사회 활동하는 시기인 만큼 몸과 마음이 지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직업과 연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옮기거나 장시간 운전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거나 미팅이 잦은 현대인들은 근력 감소가 시작되고 바쁜 일정으로 운동하는 시간도 줄어들면서 허리통증 발병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때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호르몬 부조화로 근손실이 가속화되면서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외에 운동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요통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 50~60대: 이때부터 식습관, 스트레칭, 자세 교정, 휴식을 관리하고 운동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허리통증 발병률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꾸준히 관리하는 분들은 근육량이 충분하여 허리를 잘 지탱하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요통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야외활동이나 운동으로 인한 손상도 적어 미연에 허리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운동과 관리가 잘 안되신 분들은 허리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협착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리와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70대 이상**: 근육량을 늘리기보다는 유지하고 탄력을 잃지 않도록 가벼운 운동과 스트 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날씨나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환경변화에 맞춰 적용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허리통증과 디스크, 좌골신경통, 협착증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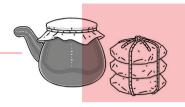
허리통증: 근육 및 인대 문제

디스크, 좌골신경통, 협착증: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 압박으로 인한 문제

■ **요통**: 허리통증, 누웠거나 안았다 일어나기 힘들거나, 펴거나 구부리는 동작, 걷거나 허리를 돌리는 동작 등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할 경우 수면 중에도 통증으로 잠에서 깨는 등 수면 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 후 침 치료하는 서상영 원장

- **디스크**: 허리통증, 저린감, 감각 이상, 다리 힘 빠짐, 오래 앉아있으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대표적입니다.
- **좌골신경통**: 디스크와 증상이 흡사하나 엉덩이 쪽이 아프고 누워서 아픈 쪽 다리를 오 므리고 옆으로 벌리면 엉치부위가 더 아프고 저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 **협착증**: 디스크와 증상이 흡사하나 협착증은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증상이 가벼워지 고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으면 아픈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다리가 시리거나 뜨겁거나 하 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디스크와 다릅니다.

예로부터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침과 뜸, 부항 요법, 한약으로 허리질환을 다스려왔습니다. 나이와 근력 상태, 손상 정도, 기초체력, 생활 습관 등 환자마다 회복 속도가 다르므로 예 후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허리 질환은 침과 한약으로 치료 할 수 있지만 만약 평지를 걷는데 헛다리를 짚는 느낌이나 대소변 통제가 안 될 경우,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부에 지방이 과다하게 쌓이면 허리에 부담이 되고, 운동을 무리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통증이 시작된 후, 운동하면 빨리 낫겠지 생각하시고 운동하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통증이 완화되는 속도를 감안하시고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후에 운동을 시작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람의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관리한 만큼 미래의 결과로 나타난 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나이 가 들어서 몸이 아프다는 말보다는 관리 를 못 해서 몸이 아프다는 말이 더 어울 릴 것 같습니다.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 해서 허리 주변 근육의 건강을 지켜나간 다면 허리질환 극복은 물론 더욱 활기찬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침 치료 후 마사지하는 직원





원장 서상영

00~05년 강서중의약대학 졸업

06년 중의사 자격증 취득

07~09년 국군양주병원

09~11년 해운대 청담한의원

12~15년 뷰티앤헬스 클리닉(자카르타 슬라탄)

17~19년 추나패밀리 마사지 운영

20~22년 방문 치료(침, 한약)

22년 6월 미르한의원 개원

미르한의원 주소: Wijaya Grand Centre Blok C No. 37 Lantai 1, Jl. Wijaya II, Kelurahan Pulo, Kecamatan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위자야센터 안 OK덴탈 옆 위치) 0856 9453 7974

바이칼의 어죽

김 준 규 시인 / 수필가 / 한국문협 인니지부회장



jinn.kim@outlook.com

고의 대초원을 벗어난 열차는 바이칼 호수를 끼고도는 긴 자작나무 숲을 훌치며 달려갔다. 차창에 어스름한 노을을 드리우며 지평선으로 석양이 함몰할 즈음 금빛 파도가 일렁이는 드넓은 바이칼 호수가 눈앞에 펼쳐졌다. 숙소를 가기위해서는 현지주민이 운영하는 호송차량을 이용해야 했다. 유럽 여행에서 자주 보던 고급스런 벤츠 리무진을 기대한 것부터가 큰 착오였을까? 일행을 맞이한 현지 가이드는 허름한 작업복에 수염이 까칠한 운전기사였고, 그들의 평균 덩치는 우리네보다 큰 편이었으며 얼굴형은 슬라브족과 몽고인의 중간쯤 되어 보이고 넙죽, 데데했다.

전설에 의하면 바이칼의 브리아트 족은 기원전 중국 북방의 부여인(扶餘人)*이 이 주하여 살던 소수민족으로 한국인의 혈통과 매우 흡사하다고 한다. 그들은 양을 모는 목동처럼 여행객을 거칠게 밀어붙이며 일행을 차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다. 차는 몇 대의 미니버스인데 바퀴는 중형트럭처럼 크고, 도로는 비포장으로 몹시 덜컹거렸다.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속은 메스껍고 모두 기진맥진한 채 얼마를 달렸을까! 서부개척 시대 마을처럼 을씨년스러운 동네에 숙소라며 내려 준 곳은 여인숙처럼 작은 호텔이었다.

불만이 가득한 채 나중에 알게 된 일이다. 러시아 지방정부는 바이칼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권익을 위해서 외부인들이 생업에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과도한 개발을 규제하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줄이자는 목적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소수의 현지인들은 문명을 거부한 채 어업이나 관광안내를 하며 생계를 유지 하고 있었다. 둑방에는 오색의 깃발을 달고 주술을 외우는 샤먼들이 간간이 눈에 띄고 관광객이 던져주는 동전을 받으며 감사의 합장을 잊지 않는다.

* 부여인(扶餘人): 기원전 중국 북방의 이주민으로 한국인과 외모와 혈통이 유사하다는 전설이 있으며 바이칼 호수에는 지금도 '나무꾼과 선녀'라는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고 한다.



다음 날 일행은 바이칼 호수의 주변에 무성히 자라나는 자작나무 숲의 트레킹을 위 해서 다시 그 무시무시한 미니버스를 타야 했다. 타이어 바퀴가 엄청 큰 이유를 그 때서야 알게 되었다. 숲속에 난 도로는 질퍽거리고 울퉁불퉁, 임신부는 감히 차에 탈 엄두도 못 낼 만큼 흔들리며 한참을 달려 정오 무렵 야영장에 도착했다. 호텔에서 아 침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모두 시장한 상태였다. 소문에 의하면 야영장에 가 면 호수에서 잡은 생선요리가 대단하다는 등 확실치 않은 정보만 무성한 채 혹시나 하며 반신반의 차에서 내렸다.

야영장 주변을 돌며 산책하는 동안 여러 명의 현지 남자들이(이른바 가이드) 분주 히 오가며 대형냄비에 무언가를 가득 채우고 불을 피우고 있었다. 이윽고 송판을 거 칠게 깎아 만든 탁자위에 대형 냄비를 올려놓고 양은 대접과 숟가락을 하나씩 나누 어 주며 식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기대하고 고대하던 의문의 생선 요리는 간데없고 쌀과 송사리를 넣고 끓인 잡탕 어죽이었다. 어릴 때 시골 저수지에서 어항으로 잡은 피라미를 넣고 끓여먹던 어죽이 생각났다.

"이런 거 먹는 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요!"

기대치를 포기한 듯 나이 지긋한 일행이 한마디 했다. 어죽 잔치가 끝나고 바다처 럼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칼을 바라보며 얼마쯤 자작나무 숲속을 헤맸을까? 어느덧 바이칼 호수의 석양이 깊은 물속으로 잠기고 나부끼는 자작의 잎새 사이로 이름 모 를 한 무리 물새가 숲을 향하여 날아간다. 그 흔한 아스팔트, 화려한 식당과 카페, 문 명의 어떤 것도 허용 하지 않고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바이칼 호수! 자작나무 향이 물씬 풍기는 숲속에 모여앉아 맛있게 먹던 어죽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어린 부디만(Budiman)이 기억하는 아버지

헬른 하르소노(Heylen Harsana)

Hotel Intercontinental Pondok Indah

Q: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픽트리 부디만(Fiktri Budiiman)이고 나이는 22살입니다. 저는 정말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Freddy Budiman)는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엑스터시(마약)를 140만톤을 들여왔던 마약상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부 자바 칠라찹(Cilacap)에 누사 캄방안(Nusa Kambangan) 교도소에서 사형집행을 받았습니다.

Q: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아버지가 결혼을 여섯 번 하셨는데, 저의 친어머니는 아버지한테는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이었고, 저에게는 배다른 형제가 다섯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버지의 세번째 부인인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저를 키워 주신 어머니와는 방카 블리퉁(Bangka Belitung)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걷기도 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도 항상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반둥에도 있었고, 자카르타, 수라바야에도 있었습니다. 저를 친아들처럼 보듬으면서 키워 주신 분은 저를 방카 블리퉁에서 키워주신 어머니 뿐(아버지의 세번째 부인). 저희 친어머니는 반둥 분이신데 제가 1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저희 친어머니하고는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카 블리퉁으로 데려갔습니다.

Q: 아버지의 실제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나요?

-핸드폰 장사를 하셨습니다. 핸드폰 수리 서비스도 하셨고, 안경집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운영하셨던 안경집이 '부디 옵틱(Budi Optic)'인데, 요즘도 영업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마약 유통을 하셨는지 전혀 의심하지도 못했습니다.

Q: 아버지가 마약 유통을 한다는 건 언제 알게 되었나요?

-한번은 수라바야(Surabaya)에 친척들이 모인 적이 있었는데, 중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 얼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뉴스 앵커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엑스터시를 140만톤 유통시킨프레디 부디만(Freddy Budiman)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Q: 뉴스를 접하고 어땠나요?

-당연히 처음에는 아버지 얼굴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 어머니와 할머니께 확인을 하고서야 믿게 되었고 두 분 중 한 분이 그때 식당이 같이 있었어요. 두 분은 알고 계셨더라고요. 아버지가 마약 유통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Q: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뉴스를 본 그날 집으로 가서 주체를 못하고 울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아무 의지도 힘도 없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거부했고 며칠은 집밖에 나가지 도 않았어요. 큰 어머니하고 친할머니는 늘 저에게 밖에 나가라 그러고, 힘 내라고 많이 챙겨주셨어요. 큰 어머니하고 친할머니를 원망했었죠. 왜 저한테 숨겼냐고요. 아버지가 절대 제가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Q: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된 그날 이후는 어땠나요?

-학교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생활했어요. 조용히 지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마약상이라는 걸 아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부디만(Budiman)'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니까, 누가 뉴스를 보고 저희 아버지라고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체포되고 6개월 지났을 때, 그때는 아버지가 자카르타 중부 지역에 있는 살렘바(Salemba) 교 도소에 계셨고, 처음으로 아버지 면회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동안 저에게 숨겼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 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화도 나고, 욕을 뱉어내고 싶었 던 것도 참았지만, 아버지가 제가 교도소에 온 걸 보자마자 우셔서 그런 모든 복잡한 감정은 삼킬 수밖 에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 외로웠어요. 그 후로는 아버지 면회를 혼자 갔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여러 번 교도소를 옮겼을 때도 혼자 운전을 해서 면회를 갔습니다.

Q: 어떤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나요?

-가족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마약 유통을 하게 된 건 환경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마약은 절대 손에도 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날 뉴스를 본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마약상으로 기억할 것이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아직도 짓누르고 있습니다.

Q: 아버지의 아들로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 있나요?

-아버지가 배도 갖고 계셨고, 발리에 호텔도 있었고, 저희 동네도 폰독 인다(Pondok Indah) 였는데, 그때는 제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예요. 발리에 있는 아버지 호텔에서 친구들하고 파티를한 적도 있고, 한번은 학교에 생필품을 나눠 준 적도 있었는데, 트럭에 실어 학교에 가져와서 그 물건들을 운동장에 내리는 데 4시간이 걸릴 정도로 전교생들과 선생님들께 생필품을 많이 나눈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10년만 투옥생활을 하면 석방되리라 기대했고 사형집행 선고를 받으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마약에 손을 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마약으로 빠지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사형집행이 되던 마지막 날에도 저랑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어했는데. 지금 인터 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희 아버지가 사형선고를 받고 생을 마감하셨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번역: 민선희)



건강한 허되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글, 사진: Christine Park

필라테스 하면 살 빠져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정답은 Yes and No! 입니다.

필라테스는 다이어트만을 위한 운동만이 아닙니다. 흉곽 호흡으로 속 근육 코어를 단련시켜서 골반기저근까지 보내 내 몸의 균형을 잡고 단단하고기동력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 '쉽게 접근할 수있는 생활 운동'입니다. 이렇게 몸의 기초를 쌓고 나면 호르몬 안정으로 인해 식욕 조절이 가능하여 동시에 다이어트와 건강한 라이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정말 바람직한 운동입니다.

격한 유산소는 극도의 과호흡과 격렬한 근육사용 으로 근육들이 긴장하고 내 몸의 정확한 인지없이 사용하여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지만, 필라 테스는 호흡과 함께 스트레스완화 골반 사용의 정확한인지로 몸의 통증 경감, 유연한 마인드까지 한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질환인 '허리통증'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나 낮은 작업대에서 일할 때, 사진 속 모습처 럼 허리를 그대로 굽혀 사용하게 되면, 온 전히 요추의 힘으로만 내 몸을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기립근(허리 근육)이 상 당히 긴장해 무거운 물체를 들 면 다치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 몸의 소중한 허리, 어떻게 사용





해야 할까요?

요가 수업을 위해 방문한 Mel-bourne zoo에서 캥거루 먹이 줄 때 깨달은 허리를 그대로 굽히는 잘못된 자세(좌) 허리 근육 사용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자세(우)





Port Stephens Sand Board에서 필라테스를 외치다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과 지방이 많은 엉덩이와 허벅지의 힘을 사용하여 기립근의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사진에서처럼 허 리를 굽히면 허리 사용이 최소화되면서 다칠 위험 이 줄어들고 하체로 상체의 무게중심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골반사용법을 익히고 하체 운동을 해야겠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누워만 있고 싶을까? 오랜 기간 동안 허벅지와 엉덩이 운동을 하지 않고 온전히 허리 힘으로만 버텨왔는데 몸이 유연해서 몰랐는데 이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1년 동안 필라테스로 근육을 키우고 허리를 아끼고 사용하여 지금은 이렇게 멋진 점프까지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내 몸의 가장 중요한 허리: 이 허리를 지탱하는 건 엉덩이와 허벅지의 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허리통증을 유발하는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해 주시고 책상 위에서 턱 괴는 습관이나, 경추를 힘없이 앞으로 빼는 거북목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난호에 다루었던 공포의 라운드 숄더 기억나시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일 쓰는 근육은 한정적 입니다. 그 근육들을 매일 단련해 주지 않으면 약해지고 다치기 쉽습니다. 위의 동작들은 우리 누구나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집에서 자주 하는 행동과 나쁜 습관들 입니다. 사소한 습관부터 바꾸어 나간다면 건강한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 있다는 현인들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허리 주변 근육 강화를 위한 시퀀스: 골반의 전방 후방 경사에 따라 허리 주변 근육을 먼저 강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pilates for adults and kids

Balletfitpilates



기구필라테스부터 발레의 기초까지 개인 완벽 맞춤 교육

다이어트

지긋지긋한 살과의 전쟁은 이제 안녕!

체형교정

비뚤어진 내 체형을 반듯하게

체력관리

일과 육아에 지친 내 몸을 튼튼하게!



Balletfitpilates.jakarta director Christine_park

매트·소도구·기구필라테스전문가과정 지도자 자격증 Kids ballet 전문가과정 지도자 자격증 Kids pilates 전문가과정 지도자 자격증 2023 시드니 pilatesbarre 산전·산후과정 수료 2023 시드니 pilatesbarre 척추측만 교정 과정 수료 전방 후방 골반 교정 필라테스 과정 수료 English Kids ballet 교육 다수 Dance for EL 단원





청주시 기업인협의회 경제사절단 한인회 방문



2023년 5월 16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 기업인협의회(회장 김선겸) 경제사절단이 한인회(회장박재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인회와 코참의 임원들이 청기협경 제사절단과 해외시장 판로개척 관련한 인도네시아 경제, 사회 및 한인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청기협 경제사절단은 같은 날 재인도네시아 한인 회 및 한인중소기업인협의회(KOSA, 회장 장윤하)와 MOU를 체결하고 정기적인 상호방문 행사를 갖기로 했다.

특히 향후 현지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강화 포럼'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입 확대와 양도시의 행정지원방안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공감대를 쌓아 가기로 약속했다.

상호방문 행사는 양도시의 기업인과 행정당국을 포함해 정기적인 상호교류 행사를 갖고 협력관계 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제사절단은 중부자바 태평양전쟁피해자 기념비 제작 후원금 한화 2백2만3천원을 재인니 한인회에 기탁하였다.





'배움을 즐기는 창의적 글로벌 인재'를 위한 창의력 페스티벌

-2023학년도 JIKS 창의력 페스티벌-





에어로켓 발사

창의체험부스활동

2023년 5월 4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이선아)에서 2023학년도 JIKS 창의력 페스티벌이 열렸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과학적으로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실시한 창의력 페스티벌은 1인 1과학 선택 활동 및 학년별 창의·과학체험부스로 기획, 진행되었다.

자신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에어로켓을 만들고 발사와 함께 창의력페스티벌의 개회를 알리는 퍼포 먼스를 진행하였다.

학년군별로 과학상상화 그리기, 4컷 과학 만화 그리기, 나만의 어플리케이션 설계하기 등의 대회를 실시하여 시각적인 매개체를 통해 문제 상황을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곤충캐릭터 만화경, 균형잡는 사자 오뚝이, 팬플릇 만들기, 4륜 프로펠러 오토마타, 태양광 선풍기, 오르니톱터 등 12가지 학년별 창의·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일상생활 속 간단하지만 신기한 과학체험을 통해 JIKS 학생 모두 1일 꼬마 과학자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모든 체험 부스 활동을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협력으로 계획, 실시되어 영어, 과학, 수학, 미술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이선아 교장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는 과학적 활동을 통해 뇌를 일깨우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 한명 한명이 각자의 분야에서 인재가 되기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과 지원을 하겠다"라는 응원의 말을 전하였다.

보다 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자! -2023학년도 JIKS 초등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2023년 5월 15일~5월 17일에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IKS, 교장 이선아)에서 2023학년도 JIKS 초등과정 수학 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6학년 학생들은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반둥으로 수학 여행을 다녀왔다. 앙쿨룽 공연관람, amazing art world 체 험, 트랜드 스튜디오, 두순밤부 등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하였다.

5월 17일에 1~5학년은 각 학년별로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1학년은 키자니아에서 다양한 직업의 종류를 이해하고, 관 심 분야의 직업체험을 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활 동을 하였다. 2학년은 안쫄 씨월드로 가서 다양한 바다 생물 을 탐색하고 바다 생태계를 관람하는 활동을, 3학년은 따만 미니에서 고장의 문화유산을 알아보기 위해 바틱 박물관을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전통 바틱 문양 만들기 체험활동 등을 하였다. 4학년은 보고르 센툴 정글랜드에서 우리 고장의 주 요시설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고, 5학년은 따만 사파리에 서 인도네시아의 야생 동물 및 동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주재국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글로벌 세계 시민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되 었다.

행사 관련 영상은 직스 유튜브 채널(https://www.voutube. com/watch?v=HP7lPcgVFB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학년 체험학습



2학년 체험학습



3학년 체험학습



4학년 체험학습



5학년 체험학습



6학년 체험학습

제 12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일반부 최우수상한 한-인니산값협력센터장상

UH Salam

김아람 (사무직, 자카르타)



안함이 밀려오고 있었다. 소리가 소리를 물며 이어지던 수런거림이 사라지고 찾아온 갑작스러운 적막이 뱃속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물속에서 유영하는 물고기의 소리 없는 일렁임을 닮아 무성 흑백영화를 보는 것같았다. "우리 길 잃었나 봐". 조그마한 중얼거림이 일행의 뒤에서부터 앞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2000년대 초, 손끝으로 툭 건드리기만 해도 온 세상을 보여주는 스마트폰과 우주에서 떠다니는 위성과 연결되어 지구의 길을 속속들이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문명의 기술들이 여물지 않은 아날로그의 시절, 우리는 낯선 도시의 울창한 숲 한가운데 멈춰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 자석의 양극처럼 밀어내는 서먹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앞서 걸어가던 현지 가이드가 길을 찾아보겠다며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인솔 선생님들은 당황스러 운 기색을 감춰보려 했지만 입매에 걸린 미소들이 어색했다. 숙소에서 챙겨 온 간식을 꺼내 나눠 먹 기 시작했다. 비 냄새가 섞인 산바람이 계속 불어 오고 있었고, 아침부터 이어진 산행으로 리듬을 잃어버린 호흡은 불규칙했다. 자카르타에서 벗어 날 기회가 드문 주니어 고등학생들에게 낯선 도시 로의 수학여행은 해방이었고, 우리는 모두 평소보 다 조금씩 흥분해 있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은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큰 섬이다. 마나도는 그곳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로 깊은 대양과 높은 산을 모두 갖고 있었다. 첫 째 날 바다에서 자유롭게 뛰어오르는 돌고래 떼를 만난 우리에게 등산은 따분하고 짜증 나는 일정이 었다. 주변을 둘러볼 생각은 애초부터 없어 멍하 니 앞 사람의 등만 보고 걸었다. 오르다 보면 정 상에 도착할 테고 다시 내려오면 그만이었다. 그 렇게 언덕배기 하나 넘는 수준이겠거니 웃으며 들 어선 산이 갈수록 심상치 않았다. 무너뜨릴 수 없 을 거대하고 검푸른 덩어리 자체였다. 길을 잃고 예정보다 더 오래 쉬는 동안 불안함은 야릇한 환 상으로 변해갔다. 어른도 아이도 아닌 어중간함 을 통과하던 시절, 도시의 생활은 지나치게 규칙 적이었다. 타국의 삶이 주는 묘한 설렘은 오래전 사라졌고 어느 것 하나 특별할 필요가 없는 정지 상태였다. 높낮이가 제 각각인 억양과 서로 다른 모국어 그리고 다양한 피부색으로 이루어진 집합 의 생경함은 이미 익숙함의 수준을 넘어 당연함이 었다. 사원의 기도 소리는 시계로 전락했고, 감히 저질러보는 변수는 용납될 수 없는 발칙함에 불 과했다. 극단을 널뛰는 감정의 틈새에 갇혀 자극 에 목말라 있던 우리에게 경로 이탈은 뜻밖의 행 운이었다. 문명의 흔적은 손목시계와 손전등이 전 부였다.

거대한 수조에 뿌려진 몇 방울의 잉크가 투명한 물을 순식간에 제 색깔로 물들이듯 현실에서 차단 되었다는 흥분이 빠르게 덮쳐오고 있었다.

예리하게 담금질 된 칼날처럼 매서운 경사 길만 오른 지 한참이었다. 잃어버린 길을 찾은 것이 아 니라 없던 길을 만들며 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제멋대로 드러누워 튀어나온 굵은 뿌리와 가지들 을 장애물 넘기 경주를 하듯 지나며 비탈진 산길 을 올랐다.

"오늘 내려가긴 하겠지?". 거친 숨소리에 밀린 투덜거림도 사라진 틈새로 그림자들이 굵게 드리 워졌다. 제법 고지를 지났는지 올라가던 걸음이 내려가는 걸음으로 바뀌며 편안해졌다. 뻐근해진 목덜미를 잡고 양쪽으로 살살 움직였다. 본격적으 로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투두둑. 모자를 눌러쓴 정수리로 떨어지는 물방 울이 기어이 굵은 소나기로 바뀌었다. 열대 도시 의 비는 거칠고 따가웠지만, 열대 우림의 것은 엉 켜있는 나무 꼭대기가 걸러주어 보드라웠다. 속이 여문 도토리가 우두둑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제법 운치였다. 빗물이 스며든 흙길은 질퍽거렸고, 앞 서가던 친구들 몇몇은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지기 를 반복했다.

"원숭이다!"

갑작스런 외침에 놀라 모두가 같은 곳을 올려다봤 다. 정말이었다. 머리 위로 길게 뻗어있는 가지에 앙증맞은 원숭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다 자란 참외와 비슷한 크기로 조그마해도 성체라고 했다. 인간이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작은 종이라는 설 명이 이어졌다. 늙은 호박처럼 노랗고 커다란 눈 을 굴리며 원숭이는 제 발아래 몰려있는 인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와아! 장난 아닌데?"

목이 꺾이도록 들어 올린 고개를 이번에는 동시 에 내려 앞을 바라봤다. 원숭이에 정신이 팔려 미



처 보지 못한 그곳에 그가 있었다. 태고부터 살아 왔을 것 같은 거수(巨樹)였다. 단풍나무의 화려한 빛깔과 노각나무의 고운 무늬도 없이 나무는 존재 만으로 강렬했다. 남자 선생님 세 명이 기둥을 안 으려 두 팔을 뻗자 간신히 손끝들이 닿았다. 불빛 이라고는 손전등 몇 개와 나무 꼭대기에서 희끄무 레한 달빛이 전부였지만 나무는 빛이 났다. 기둥 아래쪽으로 커다랗게 나 있는 구멍 너머 반대편에 서 길게 뻗어 내려와 엉켜있는 줄기들이 보였다. 문명의 이기 수천 개를 끌고 와도 덤벼볼 수 없는 웅장함이었다.

찰칵. 서둘러 나무와 원숭이를 찍자 필름이 넘어 가는 기계음이 이어지다 멈췄다. 자카르타로 돌아가 현상한 뒤에야 확인할 수 있지만, 건질 만한 것은 없을 게 분명했다. 어떤 기술로도 담을 수 없는 반짝거림이었다. 웃음이 툭 터져 나왔다. 시간이 그어둔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인간이 무한에가까운 생을 사는 나무를 가져보려 하고 있었다. 거대한 생명 앞에서 우리는 보잘것없었다. 마나도

의 나무는 갑작스레 나타난 소란스러움 앞에서 무 엇에도 잠식되지 않을 바다처럼 서 있었다. 파도 는 바다를 갖지 못한다. 요란을 떨어봐도 밀려오 는 다음 파도에 눌려 하얀 거품이 되고 부서진다. 밀려오고 끌려가며 내는 소리는 결국 사라져 남겨 지는 파도는 없다. 나무 한 그루의 질량이 수적으 로 월등한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 밤, 억지스 러운 것은 없었다. 욕심부려 가지려 하지도 성가 시다며 밀어내려 하지도 않았다. 숲이 허락해준 잠깐의 시간 동안만 빗물과 달빛에 닿아 반짝이는 생을 만났다. 밟고 선 대지는 폭신했고 주변에 가 득 찬 검은 푸름은 눈이 부셨다. 원숭이는 도망가 지도 않고 한참을 앉아 눈을 굴려댔다. 구경하는 쪽은 아무래도 원숭이였다. 어쩌면 마나도의 나 무가 오래도록 함께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안 마시고 뭐 하냐?"

주머니 속에 넣어 둔 휴대전화에서 진동이 멈추지 않고 있었다. 종이컵에 반쯤 넘게 담긴 액체를 몽 땅 입안에 털어 넣었다. 아침에 이어 점심까지 거 른 빈속에 밀어 넣는 막걸리 맛이 텁텁했다. 북한산 중턱에 앉아 비운 것만 벌써 세 통째였다. 친목을 이유로 회사 사람들과 나선 휴일 산행은 한 번 더 늘어난 술자리에 불과했다.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다시 돌아오는 종이컵을 받았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화려한 등산복을 좋 아해?"

인니인 친구들이 물었을 때 웃어넘겼는데 틀린 소 리가 아니었다. 초가을의 북한산 주말은 알록달 록한 등산복 차림이 가득했고, 취기에 젖어 벌게 진 얼굴도 여럿이었다. 무지개들이 잘못된 장소에 서 엉켜있는 듯 어지러웠다. 지이이잉. 더는 안 되 겠다 싶어 휴대전화를 꺼내 액정을 툭 건드렸다. <부장 화 많이 났냐?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혹시 찾으면 잘 커버해. 너만 믿는다.>

직속 사수인 그는 전날 과음을 했다며 약속 장소 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상에 다 와 갈 때까지 줄기 차게 문자를 보내오고 있어 성가셨다. 휴일에 숙 취에 시달리며 상사 눈치까지 보는 처지가 어지간 히 곤욕일 듯싶어 찧는 소리를 보내려다 말았다. 평소 등산 실력을 자랑하던 부장의 배낭에서 막걸 리에 이어 바나나까지 비우고 나서야 일어났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도시의 혼란을 날려버려야 한 다더니 먹어 없어질 것만 짊어온 등산이 무슨 의 미일까 싶었다. 보온병에 담아온 코코아를 가장 친한 선배에게만 슬쩍 내밀자 피식 던지는 핀잔에



어깨를 들썩여 보였다. 술 냄새 자욱한 흐트러진 말투와 기준 없이 뒤섞인 여러 장르의 음악, 조용 히 서 있는 나무들 앞에서 인간은 소란스러웠다. 지이이잉. 착신 진동이 울린다. 세상과의 단절을 일 초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기세로 문명의 이기들 이 산 정상까지 따라왔다. IT 강국에 사는 것이 좋 은 것만은 아니었다.

더는 무리였다. 정상으로 가는 마지막 지점에 서 있는 거대한 바위 두 개를 마주하자 숨이 턱 막혔 다. 앞서가던 등산객들이 암벽등반을 하듯 두 바 위 사이에 다리를 한 쪽씩 딛으며 올라가고 있었 다. 줄줄이 오르는 모양새가 거미떼 같았다. 비 냄 새가 섞인 바람이 멈추지 않았다. 우리 일행에선 막내인 내가 먼저 오르기로 했다. 왼쪽 발을 들어 바위 옆구리를 딛자 말라있는 것이 미끄러질 것 같지는 않았다.

"아이고 저 아가씨 뭐야! 원숭이처럼 올라가네!" 위아래 어디에서 봐도 꼴사나워 보일 기이한 자세 였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시 내려갈 수도 없는 노 릇인 데다 먼저 올라가 있던 아주머니들 몇몇이 감격스럽다는 표정으로 엎드려 손을 내밀어주고 있었다. 멋쩍어 괜찮다고 외치며 꼭대기까지 혼 자 올라갔다.

"기념사진 찍게 기다려!"

다 오른 모습을 보고서야 남은 일행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잘한 모래 알갱이들이 박힌 손바닥 이 따끔거렸다. 탁탁 털고 일어나려는데 순간 몸 이 휘청였다. 이른 가을치고 정상에서 분다며 바 람이 아래보다 매서웠다. 높이 묶어 올린 머리카 락이 얼굴을 쳐 눈을 질끈 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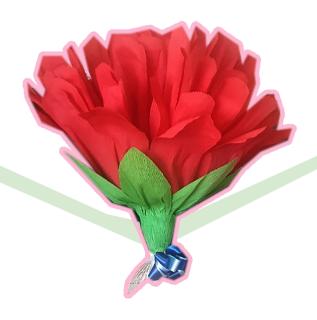
"헛!"

눈꺼풀을 다시 들어 올리는 순간 숨을 뱉듯 웃음이 터졌다. 뜻밖의 조우. 도시의 소음에 밀려나 오랫동 안 잊고 있었던 그들이, 그럼에도 결코 잃어버린 적 은 없던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달빛 아래 빛나던 마나도의 나무와 노란 눈알을 굴리던 원숭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따지막 스등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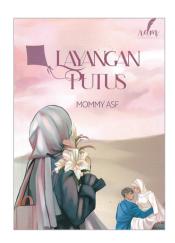


2023년 5월 15일은 JIKS 고등학교 마지막 스승의 날이다. 우리는 며칠 전부터 설 렜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싶었다. 얼른 항상 우리를 위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인사 를 드리고 싶었다. 11학년 담임선생님이 올해도 담임선생님이 되었지만 이제 입시 를 앞둔 우리는 무슨 행사를 만들기 보다 입시를 향해 한곳만 보아야 할 때여서 조 금은 죄송한 마음도 있었다.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스승의 날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당일이 되자 각자 맡은 대로 등교하여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이른 아침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듯 직접 만든 꽃을 들고 남몰래 등교한 친구도 있고, 파티용 풍선을 가져 온 친구도 있었다. 나는 케이크 하나 들었을 뿐인데 선생님들과 마주칠까 사방을 주 시하며 교실로 들어왔다. 친구들과 함께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교실을 꾸미고 선생 님을 기다렸다. 세상에서 우리반을 제일 사랑하시는 선생님께 오늘 하루만은 조금이 나마 입시걱정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 마음을 다 알아주신 선 생님이 계시기에 비로소 완벽한 스승의 날이 되었던 것 같다.

이번 입시가 끝나면 한국으로 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감사와 은혜는 마음속에 오래 오래 간직될 것이다.

사진 글: 주연서 (JIKS 12 학생기자)



인도네시아 베스트셀러, 원서 읽기에 도전!

Layangan Putus (끊어진 연)

- 저자 MOMMY ASF
- 출판 RDM Publishers
- 발행 Februari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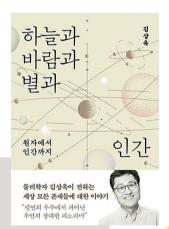
시골 출신의 순진한 한 소녀가 시골과는 너무도 다른 대도시에서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진다. 그녀의 작은 꿈은 학업을 지속하고 남들처럼 학업을 끝내는 것이었지만 독립적이고 자립심이 강한 그 남자를 만나 지금껏 만나보지 못 한 새로운 세상을 알고나서 그녀의 꿈은 더더욱 강해졌다.

키난은 아리스의 재미있는 모습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 아리스는 강한 면 모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세상 보는 방법을 변화시켰다. 두 사람은 같 은 비전이 있었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모든 것을 함께 시작했고 키난은 그들의 꿈을 이루고자 아리스의 곁에서 늘 함께 했다. 키난은 여전히 아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원자에서 인간까지

- 저자 김상욱
- 출판 바다출판사
- 발행 2023.05.26.

물리학자 김상욱이 전하는세상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알쓸인잡〉의 다정한 물리학자 김상욱이 5년 만에 신간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물리학의 경계를 뛰어넘어 원자에서 인간까지 세상 모든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물리학자에게 세상은 차갑게만 보일 거라는 선입견과 달리 김상욱이 과학의 언어로 그리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는 말한다. 물리학자에게 사랑이란 필연의 우주에서 피어난 궁극의 우연이라고. 이보다 멋지게 과학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저자는 기본 입자와 원자에서 시작해 존재의 층위들을 하나하나씩 밟아가며 물질과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조망하며 차갑게만 느껴지던 우주가 물리학자의 시선 속에서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던 한 소년의 지적 호기심이 물리학에서 화학과 생물학, 그리고 인문학으로 확장해간 김상욱의 지적 세계를이 책에서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우주와 우리에 대해 현대 과학이 도달한 지점을 한 권의 책에서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이 알아야 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양을 제시한다.



스의 곁에서 변함이 없었으나 커리어 우먼이 되고자 했던 그녀의 꿈은 잊고 있었다. 대신 아리스의 바람대로 집에서 가족을 돌보고 다시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다. 아리스는 이 모든 아름다움을 직접 즐겼지만 키난은 남편의 휴대폰속 사진으로만 보게 되었다. 그것도 다른 여자와 함께한. 연락이 끊어 진지 12일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리스는 지금까지

키난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가지고 왔다. 과연 아리스는 키난을 다시 설득할 수 있을까.

MOMMY ASF는 필명으로 본명은 Drh. Eka Nur

Prasetyawati이며 동물병원을 운영중인 수

의사이기도 하다. Layangan Putus는

그녀의 실제 스토리를 바탕으로 썼

다는 곳과 이 소설을 모티브로

드라마가 제작되어 소셜

미디어에서 상당히

핫 했던 작품

이다.



사장학개론

- 저자 김승호
- 출판 스노우폭스북스
- 발행 2023.04.19.

책은 6가지 각각의 경우의 대상자들이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한 주제들이다. 자신이 지금 장사를 하 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사람을 써서 매출을 올릴 것인지, 매출을 올려서 사람을 쓸 것인지. 함께 창업한 개국공신들의 반란과, 사업이 망해가는 징조 등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 고 싶었던 폭넓고 다양한 질문에 대한 저자의 경영철학을 담았다. 2장은 오래, 더 멀리,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내면이 힘을 키우는데 필요한 주제들이다. 훌륭한 경쟁자를 왜 축복으로 여겨야 하는지, 규모에 따 라 변해야 하는 사장의 태도, 비난에 단단해지고 정리와 정돈, 청소와 청결로 이어진 기본에 따라 깊은 심 지를 가진 사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조언에 집중했다. 3장은 거의 모든 사장, 중간급 간부 이상이라면 모 두가 어려운, 직원 운영 전반의 해결 제시가 담겼다. 사업하면서 가장 힘들고 지속되는 어려움인 직원관리 에 대한 조언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누구를 승진시켜야 하는지, 좋은 직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가장 경계해야 할 직원과 지금 즉시 해고해야 할 직원을 가려내는 방법, 더불어 회사의 언어로 보고가 이뤄지 고 소통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업무보고 방식 등, 지금 현장에서 곧바로 필요했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 을 수 있다. 4장과 5장은 사장에서 기업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단계에 있는 사장을 위한 장이며 마지막 6 장에서는 사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사장이 되려는 꿈을 가진 모두를 위한 내용에 집중되었다. 『사장학개 론』 도서는 국내 25%, 9백만 명에 이르는 사장 모두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각 펼쳐 읽어 볼 수 있도록 집필하는 동시에, 평생을 사장으로 살아 온 경험 많은 선배 경영인의 조언을 직접 듣고 싶어 했던 모든 사장들을 위한 책이다.

다년간 아이들의 글짓기 지도를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과 사례를 소개하고 '엄마가 해 줄 수 있는 글짓기 지도 방법'을 3회에 걸쳐 정리해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글쓰기를 잘 하는 비법은 엄마가 안다 글쓰기의 시작은 독서, 독서의 시작은 부 모와

글쓰기의 시작은 책을 많이 읽는 데서부터 시작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책을 통해 상

상력을 키우고. 어휘력을 넓히고

문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좋

은 시작이자 방법입니다.

현직 글짓기 교사들은 "글 잘 쓰는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손에 책을 들고 있 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이 소설이든 만화이든 참 고서이든 많이 읽는 것만큼 중 요한 기본은 없습니다.

"우리 애들은 책을 정말 안 읽어요." 그럼 저는 묻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어머님은 주로 무엇을 하세요?"

어느 육아 전문가는 거실에 TV를 없애고 책장과 책상을 배치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집안 전체를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것이 죠. 하지만 이 구조는 온 집안 식구가 아이와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엄마가 왔다 갔다 집안일을 하거나, 옆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아이 도 독서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엄마는 왜 책 안 읽고 핸드폰 해요?" 라고 물으면 엄마는 늘 이유가 많습니다.

"응 엄마 바빠, 네 옆에 있을게. 읽어", "슈퍼에 너희 먹일 간식 주문하잖아", "00 엄마한테 뭐 좀 물어보려구", "너 좋아하는 어묵 공구한다잖아"… 등등 엄마는 늘 바쁩니다. 바쁜 엄마 옆에서 아이가 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머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은 '제발 공부하고 책 읽는 아이들 곁에서 휴대폰 보지 마십시 고 오'입니다.

> 또 아이만 혼자 도서실처럼 꾸며 진 거실에 두고 다른 식구들은 방에 모여 TV를 보면서 이 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습 니다.

"책은 니가 읽는 거지, 엄마 아빠가 있다고 잘 읽어지니? 너 혼자 집중해서 공부하라고 우리가 거실에도 못나오고 방으

로 피해 있는 거잖아"

'그런데도 넌 왜 책을 혹은 공부를 안 하 니?'라는 뜻이죠.

'거실에 꽂혀있는 저 많은 전집들을 보아라. 그것 이 전부 네가 읽어야 할 너의 몫이다'라는 식은 아 이들에게 커다란 부담감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의 첫 단계는 무조건 읽어주기입니다.

최소한 잠자기 직전에라도 단 한 권의 동화책, 하나의 스토리라도 성의껏 읽어주는 게 유아 시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감성이자 추억이고 책 읽기의 동기가 됩니다.

읽어주기의 바로 다음 단계는 '읽고 생각하기' 입니다.



책을 함께 읽고 내용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상력, 사고력, 창의력을 기릅니다.

주인공 기분이 어떨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아이는 부모와 교감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게 되고 또 스스로 책을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된 아이들은 스스로 그 다음 단계 로 넘어갑니다.

바로 독서 독립, 혼자 읽기입니다. 부모가 없을 때도 혼자 책을 골라서 읽고 부모에게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서 스스로 해내고 있음을 부모에게 자랑합니다.

그럴 때 시큰둥하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크게 '너의 독서 독립을 축하해', '너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폭풍 칭찬을 해 주셔야 합니다. 유아시기를 이렇게 시작한 아이들은 책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 집니다.



독서 독립을 하지 못한 고학년의 경우

자, 아이가 어릴 때 여차저차 하여 책과 친해지도 록 돕지 못했다하는 초등 고학년 이상도 포기하지 는 마십시오.

엄마가 옆에 앉아서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불편해진 나이가 되었다면, 그제서 독서 길들이기를 시작해야 한다면 독서 독립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 책을 꺼내 들게 만드는 것이죠. 만화책도 좋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한 아이는 스머프 만화를 시작으로 슬램덩크까지 대학 면접 전날까지도 만화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스 신화도 삼국지도 만화로 끝낸 아입니다. 시사, 상식, 문화, 역사 전반에 걸쳐 그 아이와 견줄 자가 없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어찌나 신박하게 써왔는지 한편의 그림 없는

만화를 읽는 듯 했습니다.

성인물만 아니라면 잡지도 좋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자동차 관련, 패션에 관심이 많다면 패션지를 처음에는 엄마와 함께 읽으면서 글내용에 공감해주시고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러다보면 잡지 내용에 관련한 도서로 자연스레 넘어갈수 있습니다.

웹툰이나 영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의 아이들은 상상력, 창의력을 이끌어 낼 방법의 하나로 읽는 것이지 지식 충전 도구가 아니기때문입니다.

자, 글짓기의 방법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글짓기 연습은 먼저 단어 늘려가기와 문자 이어가기를 통해 어휘력을 늘려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 첫째, 글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기, 둘째, 주제와 소재 잡기, 셋째, 생각 정리하기의 순서대로 글을 써나가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예로 들면, 사실 같은 대학에 원서를 넣는 아이들의 성적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더구나 12년 특례로 대학을 지원할 때는 비슷한 성적을 가진 경쟁자들 속에서 나머지 활동과 자기소 개서가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얼마만큼 '나'를 잘 표현할 것인가, 관련 학과와 나의 평소 모습을 어떻게 연결지어 쓸 것인가, 평가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학생에게 높은 접수를 줄 것인가를 고민해서 써야 합니다. 글의 목표는 '나'를 관련 학과와 연결하여 남들과 다르게 표현하기, 글의 주제는 나의 '근면성, 탐구심과 학과의 연관성', 그리고 내가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열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써나갈 것인가를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시'하지 말고 '지도'하십시오.

글쓰기 연습 시작에 앞서 학부모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되, 지시하지 마십시오, 이 것이 부모들이 하는 가장 하기 쉬운 실수 이자 가 장 큰 실수입니다.

'책 읽어' '더 길게 써' '더 생각해봐'라고하는 것은 요구이자 지시이지 지도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단 두 줄이든 두 장이든 아이들은 어렵게 완성해 오는데, 어른들이 한숨부터 쉰다면 특히 그게 부모라면 아이는 더 큰 자괴감에 빠질 수있습니다.

어른들의 무성의한 평가,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논리 앞에 쉽게 지워지는 문장, 빨간 펜으 로 쓱쓱 그어진 노트는 아이들로 하여금 글쓰기를 더욱 멀고 험난한 길로 느끼게 할 것입니다.

여기 저기 펜으로 그어진 노트를 되받은 아이들은 다시 지우고 채우고 고민하면서 '글쓰기는 힘들다'

'지겹다' '짜증 난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결말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평가받는데 익숙할수록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 '이렇게 결말 지어도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글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날카로움을 가진 아름다운 작업입니다. 아이들이 이 작업을 쉽고 재 밌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다정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회에는 어휘력을 늘리는 여러 가지 놀이와 구체적 학습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 조은아 편집위원 (ID : Anniejo75)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 운영

기 간 '23. 5. 1. (월) ~ 7. 31. (월)

대 상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 생산·유통 조직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 선박, 특송화물 등에 관한 정보 기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 범죄정보

포 상 주요 범죄정보 제공 시 검거보상금(최대 2000만원) 지급 가능

방법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이메일 (INTERPOL@POLICE.GO.KR)





"신화를 찾아가는 자연과 문학"

「제25회 한국수필 해외심포지엄」 신들의 섬에서 만나는 문학-발리

지난 24일, 세계적 휴양지인 발라의 누사두아, Grand Mrage Resort에서 (사)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최원현) 주최로 「제25회 한국수필 해외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한국수필가협회, 리더스에세이 문학회가 공동 후원하며 28일까지 진행될예정이다.

최원현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건기의 날씨답게 "햇빛 충만한 발리의 하늘과 푸른 물결 빛나는 초목들과 함께 함께 할 순간이 마냥 벅차오른다. 마음껏 보고 누리고 넉넉히 가져오는 이번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싶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신화 속으로 들어가 우리도 신화가 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문인협회 김준규 회장은 사무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문인들의 연역을 소개하며 잎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본 주제발표는 장호병 명예이사장이 "신화를 찾아가는 자연과 문학"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전 인류적인 신화의 탄생에서 발리의 신화까지 망라하는 방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였고 참여한 30여명의 회원들도 엄청난 집중력을 보였다. 강연의 말미에서 "문학

활동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유리적 가치를 전달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를 바라 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역사 인식의 새 이미 지를 창조하는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그 작품 은 신화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라고 피력하였다. 계속되는 강연으로 최원현 이사장이 「문학적 기 행수필을 위하여 나는 주제를 제시하였다. 코로 나 이후 막혔던 전 세계의 빗장이 다시 열린다. 강 연의 말미에서 "기행수필은 내가 가야만 쓸 수 있 는 글이다. 여행은 여기서는 보지 못해서 꼭 거기 에 가야만 볼 수 있기에 떠난다. 그렇게 하여 내 눈 에 직접 그곳을 담아오는 것이다. 어쩌면 숭고하 고 거룩한 미지의 땅에서 낮에는 하늘의 해가 망 을 봐 주고 밤에는 별과 달이 우리를 지켜주는 아 름답고 신비로운 체험이니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 라며 여행과 글쓰기의 긴밀함을 부각시켰다.

한국수필가협회 해외심포지엄은 1995년 북경에서 첫 대회를 필두로 일본 동경, 미국의 시카고 등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문학적 체험을 소개하고 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며 이번에는 발리에서 신들에 얽힌 특별한 의미를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공: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사무국)

한인뉴스 편집위원 이영미 작가, 제5회 <목일신아동문학상> 동화부문 당선

올해 <목일신아동문학상>에 인도네시아에 거주 하는 이영미 작가의 작품 『나의 오랑우탄 엄마』 가 동화 부문에 당선되었다. <목일신아동문학상 >은 어린 시절 누구나 따라 불렀던 동요 '자건 거', '누가 누가 잠자나'를 쓴 은성 목일신 작 가를 기념해 2019년 제정되어 올해로 5회차를 맞 았다. 동시와 동화 각 분야에서 한 명씩만 당선작 을 뽑으며 당선자에게는 각각 상금 일천만 원과 책 출간의 기회가 주어진다. 시상식은 당선작이 출간된 뒤, 목일신 탄생 11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제1회 목일신문학심포지엄과 함께 오는 12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동화 최종심을 맡은 유성호 문학평론가와 배익천 아동문학가는 심사평에서 이영미 작가의 「나의 오랑우탄 엄마, 가 '인도네시아를 공간적 배경 으로 하여 그곳 밀림에서 주인공이 오랑우탄을 만 나 가장 근원적인 사랑과 치유의 테마를 만나고 경험하는 과정을 담아낸 이야기', '우리 존재의 기원과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생태적 사유에 이르 기까지 동시대적 의제까지 포괄하는 힘이 강하게 느껴진 역작'이라 평했다. 또한 '오랑우탄의 서 식지에서 발견해가는 깨달음과 감동의 울림이 매 우 크고 깊은 작품으로서 문장의 호흡이나 매무새 가 단정', '우리 동화 문학의 수준과 차원을 한 단계 높인 작품'이라고도 덧붙였다.

2019년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 대상, 서울 시 주최 인권동화상, 2021년 샘터상, 제주기독신 춘문예상을 수상하며 동화를 쓰기 시작한 이영미 작가는 9년간 인도네시아에 살며 영어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일과 육아로 바 쁜 가운데 한인뉴스 편집위원, 한인니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부산영어방송 · 재외동포재단 해외통



이영미 작가(출처: 목일신문화재단 홈페이지)

신원 등 다수의 동포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 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 『맹꽁이의 집을 찾아 주 세요』,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공저) 등 이 있으며 샘터상을 수상한 『마음대로 풍선껌』 이 5월말 출간되었다.

일과 사업을 따라온 사람들이 태반인 만큼 문화적 으로는 상대적으로 척박할 수밖에 없는 인도네시 아 동포사회에서 매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는 젊 은 동화작가의 등장은 글과 문학에 마음을 둔 현 지 한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기 대된다. '이영미 작가가 앞으로 펴내게 될 작품 집이 우리 아동문학계에 든든한 원군이 될 것'이 라는 목일신아동문학상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전 혀 과장이 아니다.

(제공: 배동선 작가)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의 수혜자 보고 의무 (2)

11. 회사는 다음 자료 혹은 정보에 근거하여 수혜 자를 선정한다.

- 가.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 나. 회사 설립 약정서
- 다. 주주총회 결의서, 재단법인의 지도이사회, 운 영이사회 혹은 회원회의 결의서
- 라. 정부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 마.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려는 자금을 받는 사립 단체의 정보
- 바.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립 단체의 정보 사. 사실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이사회, 감사회, 지도이사, 운영이사, 감독이사 및/혹은 회사의 직 원/간부의 사실 확인
- 자. 주식회사 주식의 실재 소유자를 확인하는 주 식회사 혹은 제삼자의 서류
- 차. 개인이 회사의 자금 혹은 자산의 실재 주인이라고 설명한 회사 혹은 제삼자의 서류
- 카. 사실을 책임질 수 있는 정보

12. 회사에서 정한 수혜자 이외에 정부 당국이 다른 수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가. 정부에서 수혜자를 선정하는 출처는 다음과 같다.
- (1). 회사에 대하여 이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정부 당국이 감사한 결과
- (2).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정부 당국 혹은 사설 기관, 및/혹은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기 록하는 특정 직업인의 보고를 관리하는 정부 당국 혹은 사설기관
- (3). 사실을 책임질 수 있는 정보
- 나. 다른 수혜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정부 당국은 :
- (1). 주식회사, 재단법인 및 단체에 관한 법률 주무 부처(*인권법무부)

- (2). 조합 및 중소기업 주무 부처(*조합중소기업부)
- (3).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다른 형태의 기업의 상업 주무 부처(*상무부)
- (4). 회사 사업 감독 주무 부처(*업종 별 부처,"예" 제조업 회사 : 산업부)

13. 수혜자를 파악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수혜자에 대한 신상 파악
- (2). 수혜자에 대한 심사
- (3). 수혜자에 대한 신상 파악과 심사는 다음 자료를 근거로 한다.
- (가). 회사의 설립 신청, 등록, 승인, 동의 혹은 사 업허가서
- (나), 사업 활동
- (4). 수혜자에 대한 정보는 최소한 수혜자의 성명, 주민등록증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혹은 여권 번호, 출생지, 생년월일, 국적, 주민등록증 상 주소, 외국인은 외국 주소, 납세의무자등록번호, 회사와 수혜자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반드시 입증 서류가 있어야 한다.

14. 수혜자 보고 의무

- 가. 회사는 수혜자에 대하여 사실인 정보를 정부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나. 회사에서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시 정보 가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사실 확인 각서를 제출 해야 한다.
- 다. 수혜자에 대한 정보 제출은 i). 회사의 설립인, ii). 사장, iii). 공증인 혹은 iv). 회사의 설립인 혹은 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
- 라. 회사 설립, 등록, 승인, 등의 혹은 사업허가 신청 시 수혜자가 이미 정해저 있으면 수혜자를 신고하고 수혜자가 미정이면 수혜자를 정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후자에 해당하는 회사는 주무부처로부터 사업허가서를 받은 지최장 7(칠)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수혜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일로부토 최장 3(삼)일 이내에보고 의무가 있다.

라. 회사는 매년 수혜자 보고 의무가 있다.

마. 회사로부터 수혜자 등록을 위임받은 회사, 공 증인 혹은 제삼자는 수혜자 관련 서류를 회사 설 립일 혹은 승인일로부터 최단 5(오)년 간 관리 의 무가 있다.

바. 회사 해산 시 청산인은 수혜자 관련 서류를 회사 해산일로부터 최단 5(오)년 간 관리 의무가 있다. 사. 위 수혜자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수혜자 변경 서류
- (2). 년례 수혜자 보고 의무 서류
- (3). 수혜자 관련 다른 서류

15. 수혜자 지정 보고 의무에 대한 감독

가. 정부 기관이 수혜자 지정 보고 시행에 대한 감독을 한다. 정부기관은 이 대통령령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회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 대통령령에 따라 직무 범위 및 책임 수행 행정 조치를 취하다

나. 돈 세탁 및 테러 자금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감독을 한다.

다. 위 "나" 항의 감독은 금융거래분석 및 보고 센터(Pusat Pelaporan dan Analisis Transaksi Keuangan/PPATK)와 협력하며, 감독 직무 수행 상;필요시에는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라. 수혜자를 보고하지 않은 회사에게는 관련 법 령에 의거 처벌한다.

16. 수혜자에 관한 정보 교환

가. 회사의 돈 세탁 범죄 및 테러 자금 범죄를 예방 혹은 소탕하기 위하여 주무 당국은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국내 기관 혹은 국제 기관가 협 력할 수 있다. 국내기관과 협력은 관련 국내법령 에 따라 협력하며 국제기관과 협력은 국제법 혹은 국제 협약에 따라 협력한다.

나. 돈 세탁 범죄 예방 및 소탕을 위한 법령에 따라 보고자와 협력할 수 있으며 PPATK에 보고 의무가 있다.

17. 수혜자에 대한 정보 요청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누구든지 주무 당국에 요 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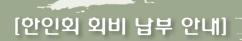
*거래하는 회사의 수혜자의 성명을 정식으로 알 아 볼 수 있다.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의 수혜자 등록 의무는 수 혜자의 돈 흐름을 감시하여 돈 세탁 범죄와 테러 자금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돈 흐름이 노 출되어 세제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는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수혜자를 선정하기 바란다.



긴급전화번호

경찰 범죄 및 도난 신고	POLICE ((Polisi)	112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 (Dinas keb	_	113
응급차	AMBULA (Ambulan)	NCE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 재인도너	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시내Directory Service(City)	108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시외 Directory Service(Suburbs)	105,100		021)2967 2580 아한인회021)521 2515
국제전화	.001,008		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교통기관		■ 항공사	안내
수카르노 하따 공항 안내021)55 Airport Information	05307/8/9 550 5179	(터미닐	내)021)521 2180 남3)021)8082 2198/9 l Center)021)2351 999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 (24시간 접수)	1)7917 1234	아시아나 힝	0804 1807 807 궁(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고속도로 정보 Toll Road	801	■ 우편	(0 0)
교통사고ll8, O21)527 5090	중앙자카르티	타 우체국021)384 4188
열차시간안내	121	■ 각종 고	장 문의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		전화고장 문	의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에 정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 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 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하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가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8459 5687 **CILANGKAP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875 3810 **JAGORAWI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740 2194 SAWANGAN BARU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F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8778 2771~2 Love Green Halim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5790 8888수출입은행525 7261KEB 하나은행 본점522 0223우리소다라은행 본점2995 1915신한은행2975 1500

가구

표지언 퍼니쳐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BSD

725 0520

변호사 이 웅



법무법인**새 강**

인니 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세무 소송 전문 대한민국 법원 비거주자 판정 다수 승소 경험

변호사 약력
1989 서울대 입학
1997 사법시험 합격 (39회)
2000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2023 현재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파트너)

법무법인 새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증앙로 108, 4층 (서초동, 케이원빌딩) T. (한국)+82-10-3051-3670 (인니)+62-857-7577-1114 E. sabub89@hotmail.com

• 꽃/화환

꽃과 좋은날0811 846 174나무플라워0812 1314 2681

●기타

에셀바틱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망산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구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전주 7278 8327 Good D=1 Gallery 573 6233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당)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RS. MEDISTRA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	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3650PEN CLINIC	C 위자야 점	2793	2625
끝	라빠가딩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u>l</u>	720	7727
Indo Dental (치고	나 의사 정혜정	!)	
	081	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I	DIKA	530	0887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11711 2 11円	723 03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뽄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끌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둥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뿔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딴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퐁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뽄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끄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쯤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뽄독삐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 <u> </u> <u> </u>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이	i) 031 734 3989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I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효(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홍대포차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면의선절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당	
소래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옥(자카르타)	081211191991
한옥	0254-385 588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용대리 (SCBD)	021-5150 7734
08	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811 887 5705 (WA)
-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조건건물 8 에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사기드다성세신군	5290 0117
● 안경원	
_	5700 7000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ا باشار ا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신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F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7919 2006 **INNOMATE**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콥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4585 8053 Wings Global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커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8년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8051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둥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져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하받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쎄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522 7204 해동검도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조수화중국어(방문수업) 0877 7551 5156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날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상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화전

굿-머니 5793 9990 0815 1423 0114 그린환전소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화저 712 8556

반등 (지역번호 022)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201 5007~8명가레스토랑200 7363코리안하우스203 1626한국관204 3069

오롬컨설팅 PT.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인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ty199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911





● 종교 단체

<기독교>		
교민교회	5576	7508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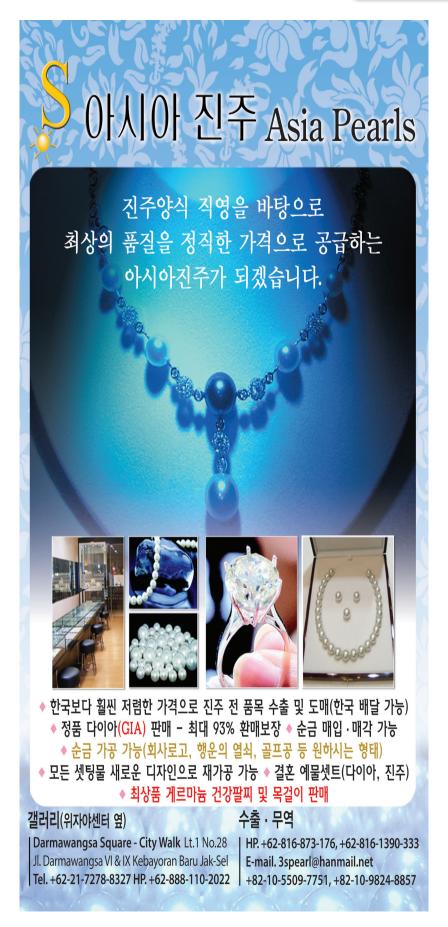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복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	18 33	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사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19329650
궁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중문고(삼당원)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선물고(급건물)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0812 859 8483
안양공고(조한영)	0812 839 8483
양정고(이종환)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0811 140 334
영등포고(정하승)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대학교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3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김 은 수	0812-8811-1733
		사무차장	김 동 영	0811-2188-855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성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홍 재 권	0812-8219-8638
		총무	안 의 현	0811-614-5469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9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10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박 병 건	0812-2685-1121
11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16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